JUN 6 1983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F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DAILY)

No.1148 1983년 6월2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hursday, June 2, 1983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김눈영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 찬 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미도파 백화점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현 영 일
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UNG I. HYUN, C.A.
Chartered Accountant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캐나다 친한파인사 17명 발기대회가져

「한·카협회」곧 창설

첫사업으로 토론토·서울시 자매결연 추진

친선을 목적으로한 민간레벨의「한·카 협회」가 금년내에 창설되고 협회를 통한 서울특별시와 토론토시의 자매결연이 내년도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를 중심으로한 캐나다 친한파 유력인사 17명이 지난달 30일밤 이상훈 토론토총영사관저에서 모임을 갖고 가칭「한·카 협회」를 창설하기 위한 발기대회를 가졌다.

한국과 캐나다 외교관계수립 이후 최초가 될「한·카 협회」는 현재 존속하고 있는「한미친선협회」와 유사한 성격을 띠게된다.

이들 17명의 발기인들은 이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캐나다 멤버인 제임스·워레일(James Worrail)씨를 발기위원장으로 선출한 후「한·카 협회」를 조속히 설립할 것에 합의했다.

워레일 발기위원장은 취지설명에서 "양국 국민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문화및 학술활동을 추진시키기 위해" 한·카협회를 설립하기를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발기인의 한사람으로 이날 모임에 참석한 잉·호프 토론토시의원(Alderman)은 토론토시 탄생 150주년 기념해인 내년에 가칭「한·카협회」의 첫사업으로 토론토시와 서울특별시간의 자매결연을 추진시키자고 제의했으며, 참석자 전원은 서울·토론토 자매결연은 양국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활력소가 될것이라면서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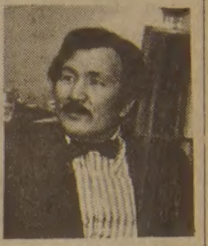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발기인 17명중에는 토론토대학교(U of T) 동아시아학부 부장인 R.W. 귀소(Guesso)박사, 이민변호사 멘델·그린씨, 토론토의 각민족제전인 캐라반행사 회장인 B.J.레기(Legge) 예비역소장, 존·클락(John Clark) 캐나다참전용사회회장, 핀랜드명예총영사이며 카머스은행부사장인 뱅 ·게스트린(Bengt Gestrin)박사, 주한 캐나다대사관무관을 지낸 크라센대령 등이다.

현재 캐나다와 한국간에「한·카의원 친선협회」와「한·카 경제협력위원회」등이 있으며, 알버타주가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연합통신)

◆「나는 바이오닉(Bionic Man)이 아니다」라고 울부짖으며, 암으로 잘려진 한쪽다리를 이끌고 캐나다 전국을 도보로 횡단하다 숨진 테리팍스군의 생애를 영화화한 실화「테리팍스」가 전국에서 일제히 개봉되었다. 배역은 실제 불구인 에릭·푸라이어군이 맡았다. 그의 용기와 끈기있는 투병은 온 캐나다인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김동길교수 강연회

7일 연합교회 주제「한국역사의 반성」



◆김동길교수

전 연세대학교부총장을 지낸 김동길박사가 7일(화) 7시30분부터 연합교회(300 Bloor St. W)에서〈한국역사의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다.

연합교회청년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를 위해 김박사는 7일 오전 시카코에서 토론토에 도착하며, 이날밤 강연회를 가진뒤 다음날 오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

김교수는 지난 4월초 누나인 전 이화여대총장 김옥길박사와 함께 미국을 방문했다. 김교수는 그동안 시카고등지의 교회에서 강연과 신앙간증을 해왔다.

교수직에서 물러난 뒤〈대통령의 웃음〉,〈길을 묻는 그대에게〉,〈어떤 사람이기에〉,〈하나님, 나의 하나님〉등의 베스트셀러저서를 내놓은 김교수는, 문교장관직을 물러난 김옥길박사와 함께 서울을 떠나 수안보에서 은둔생활을 해왔다.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한 김교수는, 보스턴대학원에서 미국사를 전공,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연은 일반에게 공개되며, 연락처는 925-[illegible]6261.

학생 반정부데모 빈발

졸업정원제폐지 주장

(서울28일)지난달 18일 광주사건 3주년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학생중심의 반정부 활동이 빈발하고 있다.

대학구내 반정부 집회와 데모등이 당국의 엄한 단속에도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성균관대등 인문·사회학과계 일부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중지하고 휴학상태에 들어갔다.

경찰은 기동경찰대를 동원, 대학내 활동이 일반시민에의 파급을 막고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의「민주화요구 단식」투쟁이 반정부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지난27일밤의 서울시내는 계엄령하를 방불케 했다. 거리의 주요대로에 배치된 경찰기동대가 학생풍의 통행인들을 일제 검문, 가방·핸드백등을 철저히 검색하고, 수상쩍게 여겨지는 사람은 버스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이 이날밤 계엄태세를 취한 것은 서울대학에서 "27일 하오6시, 서울 중심부에서 모이자'"는 비라가 살포되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에서는 광주사건 3주년 추도데모 이후 산발적으로 데모및 집회가 열렸으며, 24일에는 학생들의「신삼카드」를 소각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제까지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화여대등의 반정부 데모·집회가 확인되고 있다.

각대학에 뿌려진 비라의 공통슬로건은 졸업정원제 폐지와 학원자치제 부활이다. 문교부는 81년부터「졸업정원제」를 도입, 전대학 입학자중 70%만 졸업시키는 제도를 정하고 있다.

졸업이 힘들어지면 학업에 전념하게 되어 학생운동이 가라앉을 [illegible]것이라는 관점에서「졸업정원제」를 실시하[illegible]고 있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다.

학원내 감시도 [illegible] 엄해서 학생차림의 사복경관이 캠퍼스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아사히신문)

〈오늘의 시세〉

CN$1,00 = 629,12원
CN$1,00 = US81,28센트
금(런던) = $538,26
은(토론토) = $16,73/oz.

토론토 한국일보사
(416)533-2361

한국검찰 정식기소

중공여객기 납치범 6명

(서울1일=연합)서울지방검찰청은 1일 중공민간항공기 납치범 6명을 한국항공안전법위반, 이민관리법, 무기및 폭발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송장에서 중공의 사회·정치체제에 불만을 느낀 납치범들은 금년초부터 비행기를 납치, 중공을 탈출키로 계획을 세우고, 범인중 1명은 쯔오·장·렌(35)의 집에서 수차례 만났으며, 5월5일 선양에서 상해로 가는 비행기를 납치, 대만으로 탈출키로 결정했으나, 대신 한국중부지방에 착륙케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5월24일 이후 경찰에 정식 체포됐었다.

"전쟁준비 못견디겠다"

북한주민 정봉호씨 귀순

(서울1일=연합)44세의 북한 나뭇꾼이 짙은 안개가 낀 1일 새벽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초수로 귀순해왔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북한 강원도 철원군 청동리에 사는 정봉호씨로 밝혀진 이 귀순자는, 이날 새벽 5시35분 서울에서 60Km떨어진 연천 북서쪽 12Km지점의 군 초소에 도착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정씨는 귀순이유로 북한당국의 전쟁준비에 대한 압력을 견딜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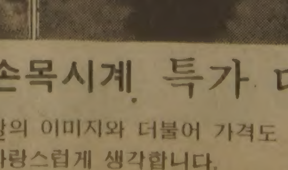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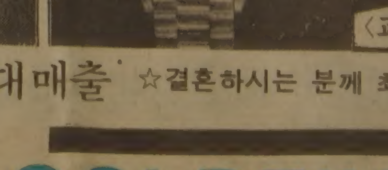
국방부는 그의 정확한 귀순이유를 조사중에 있다.

정씨는 1950년 북한 공군 소위 이곤순이 남한으로 귀순해 온 이후 95번째의 귀순자다.

한국과 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한국화장품 대리점
은하 보석
ROLEX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면허소지업체
오메가시계 45% ~ 50% OFF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은하보석상
$ 1/4 Million Diamond to SALE
완전도매가격

〈교포 유일한 연방정부 보석가공공장면허 소지업체〉
ROLEX 로렉스 14금 여자용 수동식 손목시계 특가 대매출 ☆결혼하시는 분께 최적의 기회
현명한 소비자의 단골보석상 은하는 고급 보석상의 이미지와 더불어 가격도 절대 저렴하게 판매하며, 품질을 절대 보증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은하에서 구입된 다이아몬드 반지는 언제나 들리시면 새것과 같이 CLEAN 해 드립니다.
GOLDFINGER
620A BLOOR ST. W. TOR.
☎534-9977/7791
JEWELLERY CO.

토론토한인축구대회

7월2일 센테니얼파크 축구장

◆고광남씨

캐나다한인축구협회(회장 고광남)가 한인회와 대학체육회 캐나다지부의 후원아래 주최하는 제6회 토론토한인친선축구대회가 오는 7월2일(토) 오전9시 센테니얼·파크 축구장에서 열린다.

이번대회는 예년과 같이 30세이하의 청소년팀과 30세이상 선수로 편성된 OB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벌린다.

신청마감일은 7월1일(금) 오후7시까지이며, 참가비는 청소년팀당 60달러, OB팀당 80달러이다.

이번대회의 시상은 청소년팀 우승·준우승·3등과 OB팀 우승·준우승·3등·참가상·응원상등이다.

주장회의는 마감당일인 7월1일 브랜든스포츠사에서 열린다.

한편 동협회는 9월3일 도시대항 축구대회를 열어 본국체전 파견 최종선발을 겸한 경기를 계획하고 있다.

출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598-3732로.

콤퓨터강습

23일부터 1개월간

캐나다 한인컴퓨터협회(COSKA·회장 박성수)는 오는 23일부터 7월21일까지 한달간 매주 목요일밤 컴퓨터 초보자를 위한 컴퓨터강습을 실시한다.

일반 교민을 위한 이하기강습의 내용은 컴퓨터의 기본개념, 컴퓨터 언어, 언어실습등이며, 강의료는 $45이다.

장소는 온타리오교육회관(252 Bloor St. W.), 시간은 매 목요일 밤7시에서 9시반까지 이다. 문의처는 669-5232.

토론토심포니 야외음악회

19일 2시 하이팍서 무료입장

토론토 심포니 단원 80여명이 오는 19일(일) 하오2시 하이팍(High Park)에서 세계핵무기 감축을 위한 평화의 소리(The Sound of Peace) 야외 무료음악회를 갖는다.

이번 음악회는 앤드류·데이비스 지휘로 우천불구, 휴식시간없이 진행되며, 연주곡목은 베토벤, 차이콥스키, 로씨니, 비제, 드보르작, 요한·슈트라우스등의 대중적 소품들이다.

하이·팍 야외공연은 지난번 토론토심포니 유럽 연주여행도중 단원들간에 제안된 것으로, 토론토·심포니의 정기연주홀인 로이·톰슨홀이 2,800석 밖에 되지 않아 보다 많은 청중을 팔기위해 하이팍으로 장소를 바꾸었다.

토론토·심포니의 단원들이 주동이 되어 이같은 음악회를 갖기는 사상 처음이다.

하이·팍은 블루어·스트릿남쪽 러니미드와 던다스·웨스트 사이에 있으며, 연주자용 베란다는 블루어선상의 하이·팍정문 남쪽의 포리스트·스톨엽에 꾸며진다.

도넛샵에도 번지는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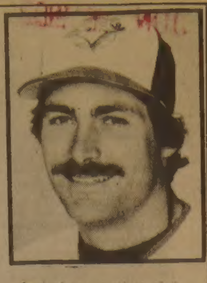
칼든 범인 현금강탈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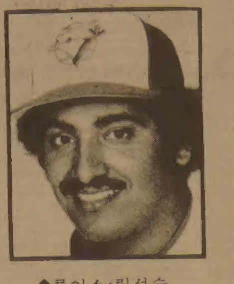
4630 킹스턴·로드의 하이웨이 도넛숍에 29일밤 칼든 남자 강도가 들어와 현금을 강탈, 도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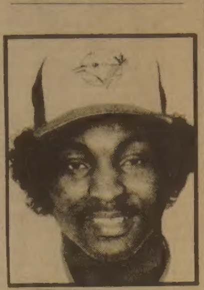
종업원 알리스·남(23)씨가 메트로·토론토 경찰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날밤 11시35분경 상점에 들어온 범인이 카운터에 접근, 캐쉬를 보고 있던 남양에 돈을 요구했다. 남양이 요구를 거절하자 범인은 직접 캐쉬대에서 현금을 꺼낸뒤 북쪽 맨스·로드쪽으로 도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금주의 선수」에 3주연속선정

토론토 불루제이스야구팀


◆데이브·스티브선수


◆루이스·릴선수


◆로이드·모세비선수

토론토 불루제이스야구팀의 선수들이 아메리칸(AL)리그가 뽑는 「금주의 선수(Player of the Week)」에 3주째 연속 선정되' AL사상 두번째 기록을 수립했다.

외야수 로이드 모세비선수는 통산 6게임을 통해 2루타 두번, 3개의 홈런, 5타점을 올려 금주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2주전에는 투수 루이스·릴선수가, 지난주에는 역시 데이브·스티브선수가 최우수선수에 선정되었다.

과거에 이같이 3주연속 우수선수를낸 기록은 1978년 뉴욕·양키즈의 3루수인 그레익·네틀즈, 투수인 구스·코세이지선수, 역시 투수인 론·귀드리선수가 선정된 것 뿐이다.

창단이후 현재까지 불루제이스에서 금주의 선수로 선정된 선수로는 오토벨레즈, 짐·클렌씨, 데이브·스티브선수등이다.

양호한 상태로 병실주변 산책

캐나다최초로 심장·폐동시 이식수술받은 아담스씨

(런던, 온타리오)지난주 캐나다내에서 최초로 심장과 폐동시 이식수술을 받았던 존·아담스씨(본보 5월28일자 참조)가 양호한 상태를 보여 자신스스로 일어나 병실주변을 걷고 있으며, 정상적인 음식을 공급받고 있다고 31일 병원당국이 밝혔다.

이식수술과장인 닥터 칼빈·스틸러씨는 현재 상태로는 회복이 양호하며, 가족들의 면회도 허가했다고 말했다.

아담스씨는 날때부터 심장벽에 조그만 구멍이 생겨 장애를 일으켰고, 이에따라 폐가 상해 작년부터 악화, 최근엔 사경을 헤메였다.

병원측은 앞으로 6주간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 이후 8주간을 집에서 휴양하며 치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녀테니스 선수권대회

7월9·10일 아모로테니스센터

캐나다한인테니스협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에 김병욱씨를 선출하고 임원진을 개선했다.

협회는 또한 오는 7월9일(토) 10일(일) 양일간 협회주최 남여테니스선수권대회를 아모르테니스센터(L'Amoreaux Tennis Centre)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대회개최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

개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 : 김규복
전 무 : 이건영
총 무 : 장북성
재 무 : 이명구
감 사 : 김광배·국한철

협회의 연락처는 전화 493-0877(김병욱), 598-3732(이건영·브랜돈운동구점)이다.

토론토 평통위 10명

청와대 리셉션참석

(서울1일=연합)전두환대통령은 1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에서 서울을 방문중인 633명의 평통위멤버들을 위해 청와대에서 리셉숀을 벌렸다. 이 자리에는 토론토지역에서 참가한 평통자문위원 10명도 참석했다.

전대통령은 이들 해외거주 평통위원들에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위치가 신장되고 있기때문에 자신을 가지고 한반도통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해외동포 평통위원들은 청와대를 예방하기에 앞서 이날 제2회 평통자문위대회에 참석했다.

전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평통자문위는 81년 6월에 조직되었으며, 토론토지역의 23명 포함, 총 10,07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비타민C」를 많이 먹어라

폴링博士주장 "감기에 좋고 지능발달에 效果"

〈컬럼버스(오하이오)-UPI〉 두번이나 노벨상을 수상한 라이너스·폴링은 비타민C가 감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지능발달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비타민 C와 감기』의 저자이기도한 폴링은 24일 리버사이드 병원의 연례협의회에서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한 정박아들의 IQ가 15~20점이나 증가됐다고 한 연구결과를 인용 발표했다.

그는 『아스피린을 과용하면 병에 걸리나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이로울 뿐』이라고 말하면서 『연방정부가 규정한 비타민 C의 일일섭취량은 괴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용감한 시민」 수상

나이아가라에서 여대생 구출한 마쉬씨

◆세리·비버버그양

나이아가라폭포에 떨어진 여대생 세리·비버버그양(20세·미국 로체스터그주)을 극적으로 구한 죤·마쉬(37세·나이아가라거주)씨(본보5월31일자 참조)가 최고의 영예인 「용감한 시민」상을 받게 됐다.

이 상을 추천한 나이아가라경찰서 돈·해리스서장은 그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정도로 대단한 용기에서 나왔다고 칭찬하면서, 사회에 귀감이 된다고 말했다.

마쉬씨는 31일밤 CFRB 라디오방송에 출연, 당시의 극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그녀가 5피트만 더 떠내려 갔어도 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물속에서 발버둥치는 순간 급류의 힘에 펜티가 벗겨져, 물밖으로 나오기를 주저했다는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마쉬씨는 설명했다.

한편 마쉬씨는 6월1일 오전 생방송되는 TV프로 굳모닝아메리카에 출연, 구사일생으로 귀환한 비버버그양과 대면하고 당시의 상황을 회고했다.

비버버그양은 기자들에게 "나는 그에게 포옹을 할 것이며, 그분이 37세의 기혼이 아니라면 청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7년만의 공개—여배우 부룩·쉴즈양이 10세때 찍은 누드사진이 19일 뉴욕에서 공개됐다. 오른쪽은 사진을 찍었던 개리·그로스. 쉴즈양은 이사진의 공개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뉴욕—AP〉

金聖鍾作

<245>

누가 惡魔인가 ⑥

남작코、部下들에 "놈은 내가맡는다"

『놈의 얼굴을 모르는게 우리의 큰 핸디캡이야.』

남작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놈도 우리의 얼굴을 모르지않습니까?』

안경이 말했다. 남작코는 새끼손가락으로 콧구멍을 후볐다.

『하지만 우리는 여자를 데리고 있기때문에 눈에 띌수밖에 없어. 그리고 숫적으로 우리가 우세한데 그놈하나를 상대로 우리가 피할수야 없지. 우리는 처음부터 공세를 취할수밖에 없어.』

『하룻밤 우리가 이곳을 사버리면 어떨까요?』

안경낀 사나이가 신통한 생각이라도한듯 말했다.

『음—그것도 괜찮은생각이지.』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채우는겁니다. 그러면 제아무리 날고기는 놈이라도 일단 이안에 들어오면 독안에든 쥐나다름없죠.』

『괜찮은 생각이야. 헌데 이자리를 어떻게 다메꾼다? 모두 동원한다해도 다차지는 않을텐데…』

『일부러 다채울필요야 없지않습니까. 듬성듬성앉으면 되지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놈이 눈치채고 안나타나면?』

『약속했으니까 나타나겠지요.』

남작코는 부하들을 둘러보았다.

『어떻게하면 좋겠어? 벙어리처럼 앉아있지말고 말해봐.』

갑자기 음악이 멎었다. 플로어에서 춤추던 사람들이 흩어졌다.

『난점이 있읍니다. 손님들이 올때 그놈의 얼굴을 모르니 누구를 들여보내야할지 알수가 없게됩니다. 누구는 들여보내고 누구는 막고한다면 소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사팔뜨기의 말이었다.

『하긴 그렇겠는데…. 그 생각을 미처 못했군. 여기를 하루 저녁 통째로 빌린다는건 문제가 있겠어.』

朴男 그림

『그리고 이곳을 빌려줄거라는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손님들을 돌려보내면 인식이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쉽게 빌려줄려고 하지않을 겁니다.』

『그렇겠는데…. 그럼 어쩌면 좋지? 어떻게 하면 그놈을 무난히 해치우고 물건을찾을수가있지?』

『놈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함부로 무기를 사용하지못할것이라보고 이곳을 택한것 같습니다.』

『놈은 내가 맡는다. 내가 신호할 때까지는 아무도 나서지마. 나 혼자온것처럼 그놈을 상대하다가 내가 신호하면 그놈을 덮쳐.』

『무기는 어떻게 할까요?』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해. 놈이 무기를 사용한다던가 놈을 이길수 없을때, 또는 놈이 도망치려고하면 무기를 사용해. 그러나그전에 생각해둬야할 점이 있어. 물건을 확보한 다음에 놈을 제거하란 말이야. 놈이 물건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놈을 제거해버리면 물건은 영영 못찾는다. 물건 찾는게 중요하지 그놈을 죽이는게 중요하지는않아.』

『알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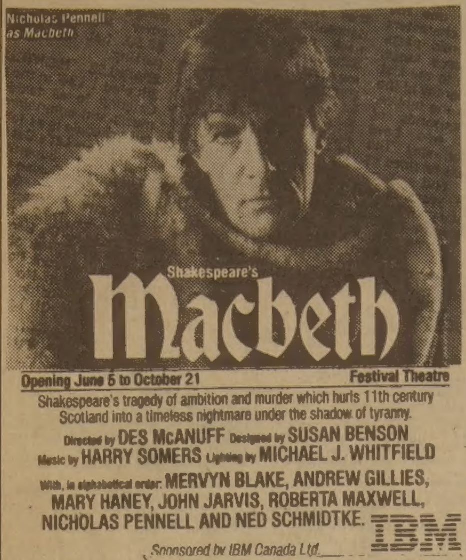
나이트클럽의 출입구는 단 두곳뿐이었다.

『그놈을 확인하면 출입구와 비상구를 봉쇄해. 이 안에 20명 밖에 10명을 배치해.』

Grand Opening
ROSE GARDEN 장미원
신장개업/6월1일
결혼, 회갑, 장례등
각종예식 화환염가판매
*각종 꺾꽃이와 꽃나무구비
확장개업
*여러종류의 꽃바구니와
선물용품도 있읍니다.
*각종케익(생일 웨딩 회갑) 주문환영
1117 O'CONNOR DR. TOR. (VICTORIA PARK WEST & ST. CLAIR EAST) ☎757-1010 (R)757-0227
대표 · 김능식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트라트포드 연극제

일명 세익스피어축제 6월초부터 10월말까지



◆스트라트포드 연극제에서 오프닝으로 개막 공연될 섹스피어 비극중의 하나인 맥베드 포스터

신록의 계절과 함께 캐나다의 문화계와 예술계가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온타리오주는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연이 벌어지며, 그중에서 스트라트포드(Stratford)의 연극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일명 섹스피어 페스티발(Shakespearean Festival)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의 연극공연은 6월초 부터 10월말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모여든 일급 배우들과 연출가들에 의해 무대에 올려진다. 금년 개장일은 6월5일.

금년으로 31회째 연례 시즌을 맞는 이곳 무대에는 섹스피어작품으로는 4대 비극중의 하나인 맥베드(Macbeth), 코메디 너 좋은대로(As you like it), 리챠드 2세(Richard II)가 공연된다.

길버트·설리반 뮤지칼의 마가도(Mikado)와 곤돌리어스(Godoliers), 모리에르의 작품인 타투페(Tartuffe), 윌리암·위철리의 코메디 시골부인(Country Wife), 아더·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Death of a Salesman)등도 공연된다.

토론토에서 약200킬로 떨어져 있는 스트라트포드는 토론토에서 당일코스로 충분하게 다녀올 수 있다.

페스티발극장에서 열리는 중요공연의 입장권은 매표구에서 살 수 있으며, 예매도 할 수 있다.

매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9시부터 오후8시30분까지, 일요일은 오전9시 부터 오후6시까지 판매한다.

시외전화예약은 (519) 273−1600이며, 토론토는 363−4471에다 문의할 수 있다.

이번 공연되는 중요무대의 일정을 보면「맥베드」는 6월5일 부터 10월21일까지,「너 좋은대로」는 6월7일 부터 10월22일까지, 「리챠드 2세」는 6월8일 부터 10월21일까지, 「곤돌리어」는 6월6일 부터 7월31일까지 이다.

토론토외의 입장권을 구입 장소는 다음과 같다.

▲벌링톤 : 모든 티켓트론(Ticketr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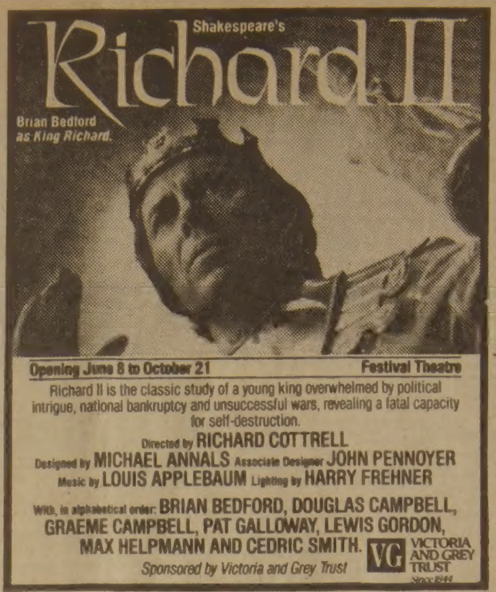
▲해밀톤 : 티켓대행소 693−1304, 샌·캐트린 티켓대행소 528−8559, 544−4817.

각종 간행물과 스케줄은 스트라트포드 페스티발 P.O.BOX 520 Stratford, Ontario, N5A 6V2로 연락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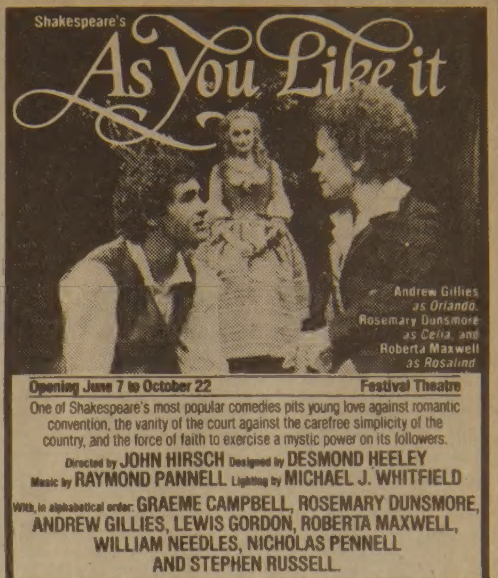
그외의 스트라트포드 주변의 명소로는 섹스피어 빌리지라고 불리는 골동품가, 섹스피어리안 가든, 빅토리안 타운, 아트갤러리, 박물관등이 있다.

이외에도 스트라트포드 주변에는 공원, 캠핑장, 자연보호구역등이 있어 야영과 견학등을 즐기며 연극을 감상할 수 있다.

7월과 8월의 매주 월요일은 연극공연과 더불어 유명한 가수 레이찰스, 네일·세다카, 멜·톰, 로버타·플랙등이 공연, 더욱 흥을 돋운다.



◆「리차드 2세」의 배역과 연출진 포스터



◆코메디물「너좋은대로」

〈연재소설〉

혼돈 ㉞

글 이태준 그림 최미정

제2편 착수

"나는 내발로 걸어나왔어. 아침 저녁으로 나발대는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어서 말이야. 나오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

"지금쯤 정신병원에 가 있을 거다. 이런 제기랄 내가 하는 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이고, 자기가 하는 건 다 잘한 거야. 한번 잔소리를 시작하면 두 시간이야. 미칠 것 같았어. 집을 나와서 생각하니까 그동안 붙어 있었던 것이 신기해."

수한은 담배를 길게 빨아 허공에 뿜어냈다.

"골치 아픈 얘기 그만하고 우리도 어디 가서 한잔 하고 들어와 자자. 모레의 거사를 위해서 말이야."

"그런데, 권리금 장사로 돈을 벌었다는 이도의의 집은 꼭 낮에 털어야 하니?"

수한이 테이블 위의 돈뭉치를 집어넣으며 영수를 따라 일어섰다.

"요즈음 우리가 몇집 턴 것이 신문에 오르락거린 후로는 밤에는 절대 집을 비우지 않는다지 않아. 그런 소문이 우리 귀에까지 들어왔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끄불쳐 가지고 있겠니. 우리를 위해서 말이야."

영수와 수한은 깔깔 웃으며 방을 나갔다.

"여기다. 지난번에 한번 왔다가 돈이 없어서 돌아선 적이 있지."

태영이 덕기를 데리고 들어선 곳은 실내장식이 모두 붉은 색으로 된 술집이었다.

"몇분이세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아름다운 서양 아가씨가 교태를 부리며 그들을 영접했다.

"보다시피 두명입니다."

"처음 오셨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본요금으로 백불을 받고 있읍니다. 아가씨의 서비스를 원하시면 시간당 60불씩 추가됩니다."

아가씨는 태영의 어깨에 손을 얹고, 육감적인 몸매를 비비꼬며 간드러지게 말했다.

"돈에 대해서는 염려말고, 자리나 안내하시오."

태영은 어깨위에 얹힌 아가씨의 손을 가볍게 내리며 여유로운 웃음을 입가에 흘렸다.

아가씨가 돈의 냄새를 맡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태영과 덕기를 좌석으로 안내했다.

좌석은 칸막이로 가려있어 옆 좌석은 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태영과 덕기가 익숙하지 않은 행동으로 자리에 앉자,

"아가씨를 원하세요?" 하고 자리를 안내한 그녀가 속삭이 듯이 물었다.

"오케이! 우선 술을 보내주고, 아가씨는 한시간 후에 보내줘요."

태영이도 그녀와 같이 속삭거렸다.

"무슨 술을 좋아하세요?"

"C.C."

"감사합니다."

아가씨가 생긋 웃고 사라졌다.

"야! 잘하면 정 붙겠다."

구경만 하고 있던 덕기가 빈정거리며 비실비실 웃었다.

"쌍! 돈이 좋긴 좋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돈이 없어서 비실거리니까 상대도 안해주던 년이 돈냄새를 맡으니까 날 잡수쇼 하는 구나."

"태영이, 너는 요즈음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럴거다. 다 타버린 촛불처럼 깜박거리던 양심의 불마저 꺼버렸으니까. 비록 내가 도둑질은 해도 양심은 있었다. 그런데 우리들의 집을 다 털고 난 후에는 내가 바보란 사실을 알았어. 값어치도 없는 티끌만한 양심을 가지고 나만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 우리야 집을 나가서 굶든 지 죽든 지 부모들은 아랑곳 않고, 호화로운 가구에 녹용까지 삶아 먹어가며 살고 있었지 않았니? 그런데 왜 나만 고민하고 살아야 하니? 나는 끝까지 가보기로 했어. 타락의 밑바닥까지 말이야."

아슬아슬하게 옷을 입은 아가씨가 술을 가지고 왔다.

태영은 술병을 따고 덕기와 자기의 잔에 술을 가득 부었다.

"이걸 다 마시라는 뜻이니?"

"마셔봐. 세상이 천국으로 보일 테니까."

덕기는 태영을 따라 술을 마셨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그는 금방 얼굴이 달아 오르고, 속이 울렁거렸다. 태영이 그의 빈 잔에 또 술을 부었다.

"태영아! 나는 그만 마시겠어. 속이 울렁거리고 토가 나올 것 같다."

"너는 니네 부모들의 악세사리가 될 수 없어서 집을 뛰쳐나왔다고 그랬지? 따라갈 수도 없는 대학을 부모들의 자랑거리로 다닐 수가 없어서 뛰쳐나왔다고 그랬지? 마음껏 마시고 타락을 해봐. 그래도 너의 부모들이 너를 악세사리로 받아주는가?"

태영은 덕기의 잔을 들어 그의 입에 갖다 댔다. 눈을 질끈 감고 반쯤 마신 덕기가 치를 떨었다.

"더 이상은 못마시겠다. 죽어도 못마시겠다."

"마셔, 안주가 나올 테니까 마셔. 싱싱한 아가씨들이 안주로 나올 테니까 마셔."

태영이 반쯤 남은 술잔을 다시 덕기의 입에 대고 재촉했다. 덕기는 다시 눈을 감고 술을 질질 흘리면서 잔을 비웠다.

"이건 순전히 의리로 마셔준 거다."

"고맙다. 그렇지만 술을 들지 않고 안주를 맛볼 수는 없어. 내가 너에게 술을 억지로 먹인 것은 비싼 안주를 그냥 내보낼 것 같아서 그랬어."

태영은 취해가는 덕기의 얼굴을 재미있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경험이 없어. 술집 아가씨들을 다루어본 경험이 없단 말이야."

덕기의 뻘겋게 충혈된 눈에는 미지의 것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런 건 걱정 안해도 돼. 남자는 교육을 받지 않고도 여자를 다룰 수 있게 만들어져 왔으니까."

"뭐, 더 필요한 것이 없으세요?"

아슬아슬하게 옷을 입고 술을 날라다 준 아가씨가 다가와 아양을 떨며 주문을 요구했다.

"있지. 술 두병과 써비스 할 아가씨를 보내 줘요."

태영의 목소리도 취해가고 있었다.

〈계속〉

너는 부모들의 악세사리가 될수없어 집을 나왔다지?… 타락의 밑까지 가보자

▲맥(왼쪽)과 서니는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맺어가며 화면을 평화로 채운다.

새 映畵

부드러운 자비

〈Tender Mercies〉

알콜로 몰락한 컨트리송作家는…

시냇물처럼 조용하고 담백하며 깨끗한 영화다. 그러나 우리의 심금을 울릴 정도로 사실적이어서 영화를 보는 동안 관객은 모르는새 장면안으로 스며들어 공감하고 연민한다. 소품이지만 최고급이다. 한때 인기가 드높았던 컨트리송작곡가 맥·슬레지(로버트·듀발)는 지나친 음주로 몰락한 방랑자. 그는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부르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내이자 컨트리송가수인 딕시(베디·버클리)와 딸 수앤(엘랜·바킨) 그리고 노래를 모두 잃은채 마른얼굴에 덥수룩한 수염을하고 과거에 대한 연민에 가슴을 앓는다. 떠돌던 그는 어느날 텍사스 오스틴부근 황량한 시골의 마리포사모텔에 묵으나 숙박비를 물 돈조차 없어 심부름꾼을 자청한다.

월남전 미망인인 로자·리(테스·하퍼)와 그녀의 9세된 아들 서니(앨란·허바드)의 보금자리인 이모텔서 일을 하면서 맥과 로자 리 그리고 서니간의 부드럽고 따스한 인간관계가 서서히 영글어 간다. 맥은 재기의 삶과 노래에 대한 끈질긴 집념 사이에서 번민하면서도 로자리와 서니의 사랑에 상처를 치유하며 조용히 과거를 정리해 간다.

맥과 로자 리는 음침과 따스함의 대조. 노을이 뜨거움이 없으면서도 만물을 감싸안듯 로자 리는 신성하기까지한 사랑으로 피곤한 맥을 감싸 안는데 이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의 연기가 절실해 우리의 마음까지 녹여준다.

호주출신의 감독 브루스·베레스포드의 미영화계 데뷔작인 이 영화의 강점은 배우들을 완벽하게 선택한 점. 그중에서도 특히 로버트·듀발의 연기가 뛰어난데 전편에 미국서민의 노래인 컨트리송이 흐르면서 듀발은 이들 노래처럼 그리고 시골풍경처럼 간단명료하고 솔직하며 차분히 명연기를 연출 보는 이들의 박수를 받는다. 듀발이 컨트리송을 기성가수 뺨 칠정도로 잘 부른다는 것을 이 영화를 보고 알게됐다. 끝처리를 대단원없이 흐르듯 연출한 점이 마음에 드는 평화롭고 자애로운 작품이다.

유니버설배급으로 등급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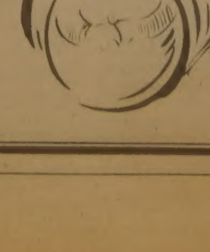
특별금리의달

자산 **$5,000,000** 달성을 눈앞에 둔 여러분의 **한인신용조합** 은 보다 높은 금리로 보답하고저 **"특별금리의 달"** 을 설정하였읍니다.

바닥이 드러나가는 일반금리의 움직임은

금리가 오를 때 같이 오르며 매월 이자를 받는 월복리의 오뚜기 정기예금!!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이율	예금종별	기간별	한인신용조합	참고 일반은행	기간
	일반정기예금	30~90일	7.75%	7.00%	6월10일부터
		120일	8.00%	7.25	7월19일까지
		180일	8.25%	7.50	40일간
		365일	8.75%	8.00	
	오뚜기 정기예금	6개월 이상	8.75%	—	

교민이면 누구나가 받을수 있는 이 높은 이익을 받아가십시오.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641A BLOOR ST TORONTO

PHONE: 533-9387/9388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도매상 인수에따른 앙케이드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뒷여론—

(편집자주)6월9일의 창립총회를 거쳐서 7월 중순의 오픈을 목표로 진척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은 실협회원뿐 아니라 교민전체의 최대 관심사로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1,200명이상 협회원들의 방대한 구매력을 자체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통하여 회원상호간의 최대한 이윤추구를 도모하고, 이를 근간으로 한 부대 사업체들을 육성함으로써 한인사회 전체에 기여한다는 것은 우리 회원전체의 필연적인 책임이며, 이의 성취는 오직 일전에 우리회원들의 단결심으로써만이 가능함은 명약관화한 사실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숙원의 대사업 착수를 앞두고 편집실에서는 전체 회원중 무작위로 50명을 추출하여 다음 3가지 설문을 가지고 의견을 종합해 보았다.

◉(설문)
(1)담배 Account를 가지고 있는 기존 한인도매업체인 신의상사를 인수하여 협동조합을 개설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인1주를 원칙으로 조합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이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3)협동조합운영에 관하여 충고, 희망, 건의등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합니다.

▲장추국
1)잘했다고 본다
2)물론 참여하겠다.
3)그로서리를 포함한 Full Line 상품을 갖추기 바란다.

▲최상수
1)담배 Account가 제일 중요하니까 잘했다.
2)꼭 참여하겠다.
3)1인1주를 제도화하여 개인기업화가 안되도록 전체 조합원의 균등한 혜택에 유의해야 한다.

▲원종필
1)잘했다고 본다.
2)참여하겠다.
3)현금거래를 하지 말고, Bill을 K.B.A를 통해서 Term을 두고 함으로써 기타 도매상과의 공공연한 경쟁을 피하고 리베이트도 비공개리에 하기 바란다.

▲김용규
1)아주 잘한 것이다.
2)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3)별로 할 말이 없고, 관계자들이 알아서 잘 할 것으로 믿는다.

▲홍사렴
1)참 좋은 결정이었다.
2)물론 참여한다.
3)초창기에 약간의 불만이 생기더라도 전체가 합심해서 육성해 나가야 한다.

▲강창흡
1)잘했다고 본다.
2)물론 참가하겠다.
3)무엇보다도 회원에게 골고루 균등한 혜택이 가도록 운영해주기 바란다.

▲최호영
1)아주 잘했다.
2)꼭 참여하겠다.
3)철처한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으므로 잘 될 것으로 믿는다.

▲강기원
1)잘한 처사이다.
2)참여하겠다.
3)개인기업이 아니므로 경영관리를 철저히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

▲함덕상
1)아주 잘했다고 본다.
2)물론 주를 사겠다.
3)전체 회원의 참여를 바라고, 담배의 경우 Credit을 $20,000한도로 2개월까지는 주도록 바란다.

▲김풍수
1)담배 Account의 중요성으로 보아 절대 잘했다.
2)물론 참여하겠다.
3)담배와 그로서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품목을 다루고, 장소는 중심지인 401근방이어야 하며, Cash & Carry와 Delivery 두 제도를 병행하고, 친절과 써비스를 위주로 운영하기 바란다.

▲이정구
1)잘했다고 본다.
2)참여하겠다.
3)많은 분들이 잘 할 것으로 믿고 선량한 고객이 될 것을 약속한다.

▲최봉식
1)아주 잘했다고 본다.
2)꼭 참가하겠다.
3)갑자기 크게되느니 보다 서서히 커지기를 바란다.

▲이회용
1)잘된 것으로 본다.
2)주식을 매입하겠다.
3)별로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소자
1)잘했다.
2)생각해보겠다.
3)생각해 본 일이 없다.

▲김의휘
1)잘한일이다.
2)1인 1주면 사겠다.
3)Cash & Carry와 Delivery 병용이 중요하다. 일반도매상과 같이 반 C/S도 살 수 있도록 하라.

▲김영철
1)권리금 안주고 별도로 신설했으면 했다.
2)생각해 보아야겠다.
3)이권이 관계되니까 모든 것을 공개해서 전회원이 이해하고 불만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임창빈
1)잘 모르겠다.
2)현금으로 1시불하는 것이 아니면 가입하겠다.
3)다른 도매상과 적대관계에 서지 말고, 단계적으로 커야지 갑자기 크는 것은 위험하다.

▲박영구
1)잘했다고 본다.
2)찬성하고 가입하겠다.
3)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바란다.

▲이요셉
1)잘했다고 생각한다.
2)가입하겠다.
3)갑자기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장성순
1)잘했다.
2)1시불이 아니면 가입하겠다.
3)알아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기 바란다.

▲김회수
1)생각안해 보았다.
2)두고 보아야겠다.
3)관심을 안두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다.

▲허종수
1)잘했다.
2)가입하겠다.
3)성급한 기대는 하지 않는다. 담배 한 품목이라도 충실히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회원들에게 돌아왔으면 한다.

▲유만춘
1)그 이상의 아이디아는 없는 것으로 안다.
2)물론이다.
3)문제는 경영관리다. 그의도나 이상은 말할 수 없이 좋으나, 조합원의 능력과 양심이 큰 문제일 것이다.

▲함금상
1)잘한 것으로 생각한다.
2)가입하겠다.
3)협회 간부들의 능력과 양심을 믿는다.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하고 부탁드린다.

▲이재영
1)담배에 도매상 허가 없이는 협동조합을 생각할 수 없다.
2)하도록 하겠다.
3)간부진이 신중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전윤식
1)백번 잘했다.
2)해야죠.
3)조합운영 간부진의 공신력과 정직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한다.

▲김관영
1)기존도매상간의 가격경쟁이 극심한 지금같은 시기에는 경쟁력이 있는 기존 도매상 인수외에는 딴 방법이 없다.
2)물론이다.
3)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하다. 조합 전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중지를 모으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김영대
1)담배 Account 내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 길 밖에 없다고 본다.
2)물론 참여한다.
3)기존 도매업자들도 고전하고 있으니까 노련한 경영진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차명진
1)아주 잘한 것이다.
2)가입해야죠.
3)기존 도매업자와의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도록 유의해주기 바란다.

▲이환규
1)담배 Account가 중요하니까 잘했다고 본다.
2)불입금에 대한 안전만 보장되면 가입하겠다.
3)처음 2회까지는 Term을 주고, 그 후에 C.O.D로 하는 방향으로 혜택을 주기 바란다.

▲나영삼
1)담배 Account가 중요하니까 잘했다고 본다.
2)가입하겠다.
3)Billing을 제때에 정확히하고, 부정이 없도록 깨끗하게 운영하기 바란다.

▲강찬덕
1)잘했다.
2)참여하겠다. 다 참여하기 바란다.
3)많은 품목을 취급하여 구색을 맞추기 바란다.

▲양주재
1)값만 적당하다면 잘된 것으로 본다.
2)참여하겠다.
3)많은 분들이 하는데 따라 적극 협조할 따름이다.

▲이만영
1)담배 Account가 중요하니까 잘했다고 본다.
2)몇 사람의 이권에 안 넘어가도록 회칙에 보장되어 있으면 기꺼이 가입하겠다.
3)몇몇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운영을 바란다.

▲정형출
1)신의상사를 위해서도 잘한 것으로 본다.
2)물론 가입한다.
3)당장 생각나는 것이 없다.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

▲석종윤
1)잘한 일이다.
2)앞으로 생각해 보겠다.
3)전회원이 다 합심해서 조합을 거래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이종원
1)깊이 생각을 안해 보아서 잘 모르겠다.
2)아직 두고 보아야겠다.
3)전체 회원에게 균등한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데, 잘되기 바라지만 불연이면 안한 것만 못하지 않은가 염려된다.

▲김정곤
1)잘했다고 본다.
2)가입하겠다.
3)Management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기대
1)잘했다.
2)가입하겠다.
3)당장 생각나는 것이 없다.

▲서명식
1)생각해 보지 못했다.
2)두고 보아야겠다.
3)내용을 검토한 후에 언급하겠다.

▲조승호
1)잘했다고 본다.
2)가입하겠다.
3)충분한 Stock을 골고루 구비해 놓기를 바란다.

▲이경숙
1)모르겠다. 어련히 잘했을 것으로 본다.
2)하겠다.
3)실협에서 하는대로 적극 협조할 뿐이다.

▲이학현
1)아주 잘했다.
2)물론 가입한다.
3)타 도매상과의 문제해결이 중요하고, 주주의 Share를 Clear하게 해야한다.

▲유동수
1)잘했다.
2)사겠다.
3)물건을 다양하게 고루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의상사가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문백락
1)아주 잘했다.
2)참여하겠다.
3)기존 도매상을 자극하지 않도록 너무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나갔으면 좋겠다.

▲박두만
1)담배 Account로 보아 잘되었다고 본다.
2)시외까지 배달된다면 참가하겠다.
3)당장 생각나는 것이 없다.

▲김인종
1)잘된 것 같다.
2)장단점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가입하겠다.
3)실력을 너무 과장해서 기존도매업자의 대항을 유발하지 말고, 조용히 진행했으면 한다.

▲이용섭
1)잘된 것으로 본다.
2)혜택이 있으면 가입하겠다.
3)협회에서 다 잘할 터이니까 맡기겠다.

▲김종열
1)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고는 모르겠다.
2)역시 정관의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
3)과연 어느정도 단결되어서 잘되어 나갈지 걱정이 된다.

▲이형인
1)협회집행부및 이사진이 최선을 다했으리라 생각되고, 기존 유태계 경쟁관계로 차선의 방법이 없었다고 본다.
2)참여하겠다.
3)연구하고 노력하여 실협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었으면……

이상의 앙케이트를 종합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설문 1)
◆잘했다. 88%
◆잘 모르겠다. 10%
◆따로 설치해야 했다. 2%

◉(설문 2)
◆참여하겠다. 84%
◆생각해 보겠다. 16%
◆참여할 의사가 없다. 0%

◉(설문 3)
(1)상품을 골고루 구비하라.
(2)혜택을 균등히 하여 개인기업화되지 않도록 하라.
(3)기존도매상과의 적대관계를 방지하라.
(4)과욕을 버리고 서서히 진행하라.
(5)정직하고 유능한 메네지먼트가 중요하다.
(6)전체 회원이 참여하도록 주력하자.

등이 주요한 의견이었고, 기타 일부 의견중에 Cash & Carry와 Delivery제도를 병용할 것, 가능한한 충분한 Term을 주도록 할 것, 만사를 공개하여 불만이 없도록 할 것등의 견해가 있었다.

일요일 영업문제로 시의장 면담키로

근간 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요일영업허가 문제는 협회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문제로서 우리의 입장을 제시하고, 이를 저지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제1차로 토론토시의 의회장「갓푸레이」씨에게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일자와 시간이 정해지는대로 협회의 회장단과 이사장단은 그를 방문하여 설득을 전개할 것이며, 이를위한 사전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회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종신의「人間市場」
●한국 [illegible] 人脈을 캔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실업인협회 임시총회 및 협동조합 (가칭)발기총회 소집공고

일 시 : 1983년 6월9일 오후6시(발기총회는 7시)
장 소 : DOWNTOWN HOLIDAY INN
(COMONWEALTH ROOM 2층)
89CHESTNUT ST. TORONTO(토론토시청 북쪽)

발기인 :
강경하 강기원 강대영 강문원 강수호 강준남 강창흡 고정배 구철회 권광수 김강선 김경애 김관영 김광철 김구명 김근철 김남원
김덕용 김명정 김병선 김봉근 김상달 김상철 김석철 김선영 김소일 김신철 김연오 김영곤 김영권 김영대 김영무 김영진
김영환 김용규 김용기 김용준 김은하 김응하 김재온 김정식 김정치 김종열 김중철 김철수 김충헌 김태진 김풍수 김현덕 김현승
김형호 김희삼 나상선 만양정 문옥섭 박광철 박경덕 박경택 박규동 박기창 박남희 박영우 박찬도 박천봉 박태조
박희영 방익석 배기욱 배기웅 백경락 배용빈 변경용 변일용 변의섭 서광철 서동준 서동헌 서민석 서정길 서준경
성상근 소수자 손병헌 송기선 송완일 송영집 송재규 송종남 신장휴 신화성 심태섭 안규정 안기정 안 덕 양혜룡
엄기성 엄동환 여문석 우인도 우희두 원일재 원종필 유만춘 유석주 유승현 유영갑(R) 유영갑(Y) 유인석 유종철 윤재용
이건영 이경선 이국영 이기대 이기성 이기훈 이동환 이민식 이범재 이병권 이상봉 이삼철 이성우 이성호 이승수
이승우 이양주 이영민 이용규 이 윤 이인용 이장세 이정구 이재영 이종원 이주태 이주택 이춘영 이진효 이춘수
이학현 이한근 이형택 이홍규 이 휘 임승철 임의상 임철원 장가진 장순채 장재식 장재춘 장정애 장추국 장홍원
전기석 전석규 전윤식 정상우 정승은 정원영 정인필 정태호 정희철 조기연 조남용 공재용 권순근 김가별 김기봉
김영호 김종조 김학성 김현수 나영삼 남상현 마보훈 명노길 문영환 민병국 박두하 박상남 박영구 박영자 분가이
서상수 서춘원 손영곤 손용성 송남성 원재훈 원종선 유기훈 윤길웅 이광노 이근호 이민복 이순복 이영민(T) 임영하
장영대 장인수 장혁진 정동희 정익영 최용근 함태민 고천석 남동희 양길웅 진경호 조영덕 조용규 조한권 추창균
진현철 차선겸 차선철 차선행 천성열 천용기 최기주 최남축 최대덕 최동주 최무원 최복기 최봉식 최상수 최상철
최영길 최영식 최우현 최원보 최장복 최종국 최종원 최태식 최호영 한광명 한용식 한천석 한행일 함금상 함덕상
함의현 함태산 함효상 허재영 허종수 허충식 현영일 홍건선 홍사렴 홍창성 홍한기 황규택 황인주 황재필 (5월31일 현재)

한국일보

西方7國頂上회담 개막

美 윌리엄즈버그서 景氣회복등 세계經濟 논의

【윌리엄즈버그=李文熙특파원】지속적인 국제경기회복방안을 비롯, 세계경제현안을 종점협의하기 위한 西方선진7개국 경제정상회담이 레이건美대통령과 영국·프랑스·서독·이탈리아·일본·캐나다등 7개국 수뇌들이 참석한가운데 28일상오 美버지니아州 윌리엄즈버그에서 개막됐다。

이번 7개국정상회담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속적회복을위한 방안을 포함, 국제금융위기해소, 美달러貨 강세및 高금리문제,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제안한 新브레튼우즈체제창설안, 무역자유화문제등이 집중토의될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정상회담은 29일 상오 필라델피아대륙회의에서 최종승인된 미국독립선언서가 처음 발의된 윌리엄즈버그의 유서깊은 건물에서 개막되며 후속회담은 다른 역사적인 건물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약3분의1은 참가국외상, 기타 보좌관들과 회의록작성자들도 참석시키지않고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30일까지 3일간계속될 이번 7개국정상회담은 주요의제들이 한결같이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고질적이면서도 각국의 이해가 크게 상충되는 문제들이기때문에 과거 어느때보다 難航할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적자를 축소, 金利를인하한다는 기본입장에 있어서는 7개국 수뇌들이 모두 찬성할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을 주재하기위해 27일 헬機편으로 윌리엄즈버그에 도착한 레이건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7개국수뇌들이 세계경제회복문제를 주로 협의하게 될것이며 자신은『보호무역주의와 失業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생각이라고 밝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961

◇레이건 記者회견 로널드·레이건美대통령이 27일 西方선진7개국經濟頂上會談 개막을 하루앞두고 회담기간중 자신이 묵을 윌리엄즈버그의 프로비던스·홀에서 기자들에게 짤막한연설을 하고있다。 그의 왼쪽에 조지·슐츠국무장관과 오른쪽에 도널드·리건 재무장관이 보인다。【윌리엄즈버그28日UPI회견=聯合】

호텔·高層건물 내장 防炎材로 바꿔야

카피트·침대등 85년까지

內務部, 소방법 改正案 마련

관광호텔을 비롯한 지상11층 이상의 모든 고층건물은 오는 85년까지 커튼, 카피트는 물론 침대등 집기까지 모두 방염(防炎)재료로 돼있는 것으로 바꿔 시설해야 한다。

내무부는 28일 고층빌딩 화재때 인명등 피해가 많은것은 각종내장재에 방염처리가 돼있지않기 때문인것으로 결론짓고 고층건물화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고층건물에 스프링클러·소화기등 소방설비를 제대로갖춘 경우라도 모든내장재를 방염처리토록하는것을 골자로한 소방법개정안을마련, 오는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현재 소방시설의 공사나 정비를 하는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만하면되던 규정도 개정,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만 소방시설을 시공할 자격을 주도록했다。

현행 소방법 제12조에는 공중주택을 제외한 극장 호텔 카바레 병원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대상건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등은 방염성능이 있는것으로 해야하나 단 스프링클러 설비나 물분무소화설비또는 자동식 포말소화설비를 갖춘곳은 제외된다고 규정돼있다。

개정안은 이규정의 단서조항을 삭제,모든건물에서 방염재를 사용토록 강제규정화 한것으로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것。

해설 화재피해 대형화 예방

내무부가 고층건물의 내장재나 사무용품등을 防炎材로 대체토록 한 것은 뒤늦게나마 소방행정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다。

현행소방법은 大然閣화재등 대형화재사고후 대폭손질된것으로 빌딩의 내부구조를 불연재로 바꾸도록하는등 상당한 규제를 가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각종 고층빌딩안에 있는 목재 사무집기 카피트등 언제라도 불이 날수있는 가연성물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방화대책을 방폭박에 마련하지 않은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규제의 미흡으로 불이 나면 쉽게 번진것은 물론 유독가스를 뿜는 합성섬유등으로 피해가 대형화했다는게 소방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더우기 고가사다리차등 현존 소방장비로는 11층이상 고층빌딩화재에 속수무책인게 사실이기 때문에 고층건물에 대한 방화대책은 고층빌딩이 늘어가면 갈수록 더 절실한 것이었다。

마침 방염 페인트, 방염 카피트등이 국내기술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법규의 강화로 사업주들은 돈이 조금 들더라도 불이 한번 나 몇십, 몇백명이 죽는 후진국형 사고가 더이상 나지않도록해야 당연하다。【裵琪哲기자】

◇全대통령이 東海岸의 海溢피해 복구작업을 하는 주민들을 격려하고 있다。

"災害예방책강구해야"

全대통령, 東海岸 해일피해지역 시찰

全斗煥대통령은 28일 상오에 걸쳐 江原道 三陟郡 臨院港과 墨湖港등 동해안의 海溢피해상황을 살피고 복구작업중인 주민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해일피해상황을 시찰하고 三陟군청에서 朴元基군수로 부터 郡政현황을 보고받은뒤『태풍, 해일, 가뭄, 水害등각종 天災之變은 年度別로발생했던 시기등 통계를 정확히 파악, 예상되는 시기에 사전예고를 하는등 對국민홍보를 철저히 하는한편 관계기관도 사전예방대책을 완벽히세워 피해를사전에 예방하거나 극소화시키도록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어민등 피해주민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처리에 각별히 신경을쓰고 지금이 농번기인점을감안해 농사일에 차질이없도록 복구사업을 원만히 치러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해일, 홍수등이 발생한후에는 각종전염병등 질병이 발생할우려가 있으므로 관계기관과의 협조를통해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郡政보고를 받은뒤 三陟읍내의 한 대중음식점에서 郡內각계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일선행정기관들은 지역특성에맞는 造園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귀로에 墨湖港에들러 海溢피해상황등을 살펴봤다。

레바논 內戰 再燃

【베이루트25日=聯合】베이루트근교의 구릉지대에서 28일새벽 레바논의 양대적대세력인 우익기독교민병대와 좌익회교도들간에 대규모로켓포격전이 벌어져 많은포탄이 베이루트시내를 강타했다고 레바논보안관리들및 목격자들이 전했다。

포탄들은 베이루트시내에 광범위하게 떨어져 곳곳에서 검은연기가 피어오르고 시민들은 전율에 휩싸였는데 75~76년 내전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녹색선」동쪽의 기독교 아쉬라피예지역에 최소한 10여발의 포탄이 떨어졌다고 목격자들이 밝혔다。

보안당국은 정확한 인명피해는 아직집계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우익팔랑헤 방송은 적어도 8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시리아軍 훈련에 蘇軍도 참가

【베이루트·텔아비브AP聯=聯合】수미상의 소련군부대가 골란고원부근에서 실시중인 시리아軍지상기동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했다고 레바논의 민영방송들이 27일 보도했다。

이 방송들은 소련군부대가 시리아에서 실시되는 지상훈련에 참가하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는데 이같은 보도는 공식확인되지 않았으며 소련군의 참가규모도 보도되지않았다。

中央廳, 7월에 改築

中央廳의 국립박물관화계획에따른 중앙청입주 部處의 종합청사移轉이 28일로 끝났다。

지난3일부터 시작된 이전작업은 이날 국무총리실을끝으로 마무리했는데 金相浹국무총리는 이날 상오 중앙청집무실에「中央廳시대」를 마감하는 다과회에참석한뒤 광장에서 기념촬영을했다。

金총리는 오는30일 상오 9시부터 종합청사 집무실로 출근하게된다。

한편 문공부는 오는7월부터 중앙청건물을 박물관으로 改築하는작업을시작, 85년말까지 완료할 예정。

◇中央廳시대는 끝나고… 28일상오 중앙청에서 마지막 執務를끝내고 중앙청을떠나는 金相浹국무총리와 朴贊兢총무처장관。 총리실이 이날중앙청을 떠남으로써 정부수립이후 35년간「行政1번지」역할을해온「중앙청時代」는 幕을 내리게됐다。

資源管理法 수정키로

정부·民正黨

정부와 民正黨은 현재국회에 계류중인 資源관리법안의 명칭을 戰時대비법또는 非常대비법으로 고치는한편 논란이많았던 등록대상도 대폭축소하는등 상당부분의 내용을 수정키로했다。

黨의 한 정책관계자는 28일『애매한 의혹을 불러일으킬수있는 자원관리법안의 명칭을 고치는 한편 등록대상도 대폭축소,일반노무부문대상자를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의사·기술자등 전문기능인만을 대상으로 한는등 상당부문을 수정키로 정부측과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밝히고『막연하게「필요시」라고 규정한 이법의 발동요건도「戰時·事變의경우」로 명백히 규정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다。

民正, 30일中央委

民正黨은 30일 서울江東區可樂洞중앙정치연수원에서 3천80여명의 중앙위원과 참관인등 3천3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創黨후처음으로 중앙위원회 정기위원회를 열고 내정된 王相殷중앙위의장을 의장으로 再選하는한편 통일·안보분과위등 20개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지도층 새마을교육 30일부터 再開

長·次官을 비롯한 사회각계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하는 새마을교육이 오는30일부터 재개된다。

5박6일 과정으로 모두14기에걸쳐 신축된 城南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서 실시될 사회지도층 새마을교육은 장관·차관급공직자와 總·學長등 교수,변호사·판·검사등 법조인과 종교계의주요교직자, 병원이나 약국을 경영하는 의·약사, 종합상사와 대기업체任員등 각계지도급 인사 1천8백여명을 대상으로하고있다。

30일 시작되는 제1기교육에는 내무, 전설, 총무처장관과 원호처장, 외무, 법무, 상공차관등11명의 장·차관급이 入所한다。

社會漫評

이번에 터지면 몇次戰이되지!!

地平線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직업은 매춘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로비(LOBBY)야 말로 最古의 직업이라고 생각한다』70년대말 朴東宣사건이 한창 시끄러울무렵,어떤미국인 로비이스트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아담과 이브의 얘기까지 끄집어냈다。 사악한 뱀이 이브를 유혹하여 금단의 과일을 먹게 한 그 설득 과정이 바로 로비활동 아니겠느냐-면서 그는 웃었다。

▼美의회에 대해 특정의목적에 따라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을 미국 사람은 로비활동이라 일컫는다。 이같은 직접 로비 이외에도 白堊館등 행정부나,국민일반에 대해서도 넓은 의미에서의 로비활동이 행해진다。 로비를 모르고 미국정치를 이해할수는 없다。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강력한 조직으로 白堊館,대기업,上院,大法院…의 순위가 꼽힌다。 더 꼽아내려가면,아홉번째가 은행,그다음이 로비이스트들。 제4부라불려 콧대가 높은 言論은 그보다못한 11위。 그다음으로 월街,내각,민주당,광고로 이어지며,下院은 7위에 올라있다。 몇해전 여론조사 결과를 집계한 이순위에서 로비활동의 비중을 알수있다。

▼미국에서 한때 위력을 휘둘렀던 로비는 차이나·로비로 불려진 대만로비가있고,현재 가장 강력한 로비는 이스라엘·로비다。 49년 蔣介石의 國民黨정부는 대만으로 쫓겨갔으나,차이나·로비의 힘으로 20년이상이나 北京政府를 소외시킬수가 있었다。 이스라엘로비의 母體가 되는것은 조직력·정치의식이 높고 재력이 풍부한 약6백50만 유태계 미국인들의 연대감이다。

▼이스라엘이나 대만못지않게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利害관계가 깊다。 그래서 朴東宣씨에게 기댔다가 많은 부작용을 빚어냈다。 정부는 그같은일이 다시 없게 공식 로비이스트들을 지정하는것을 검토중이라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미국에서 최선의 로비활동은 미국국민들이 한국과 한국정치에 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로비활동에, 前轍을 피해가는 지혜를 당부한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운전학교
PRINCIPAL DRIVING SCHOOL
* LEARN DEFENSIVE DRIVING *
●이론과 실기 그리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빠르게 습득하도록 지도함.
CPDEA MEMBER
☎ 221-7783 : 789-1679

Grant Brown
●각종 왜건(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한구
☎ : 247-7161

새한칼라 확장이전
인사말씀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는 6월1일부터 아래주소로 이전확장하여 교민여러분께 봉사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인덕 올림
이전일 : 6월1일
새주소 644 BLOOR ST. W.
(신용조합 건너편)
전화 535-7772

Kanata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Inc.
10 St. Mary Street, at Yonge, Fifth Fl
Toronto, Ontario M4Y 1P9
컴퓨터·싸이언스코스
학생모집
저희 Kanata 학교는 Minis, Micros and Main Frame 컴푸터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사이언스 코스를 가르칩니다.
6개월 코스를 합격하면 Diploma in Business Computer Programing & Systems Analysis을 받을수 있음.
우리들의 집중적인 6개월 프로그램은 COBOL, RPGII, BASIC, DATA BASE AND SYSTEMS DESIGN을 훈련함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매 새학급은 5주마다 편성되어 시작합니다. 직장도 알선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직장 알선율을 알아보십시요.
1983년 수업시작일은 6월27일, 8월22일, 9월19일, 10월17일.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시면 MR. WAN 960-8708 또는 장거리 무료전화 1-800-387-1235로 전화하면 됩니다.
※외국학생, 국내학생 환영

NEW WHITE ROSE PAINTING
아파트먼트 페인트전문
1 BED ROOM $185.00
2 BED ROOM $225.00
3 BED ROOM $265.00
새봄맞이 단장을 원하십니까?
집페인트—스페샬가격
☎431-2019

「經濟고민」…떠들썩한 古都

7개國 頂上회담 落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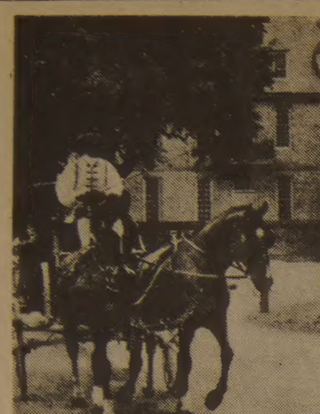
各國 대표단만 6천명 넘어

紅一點대처"자신있다"기염

○…서방7개국정상회담장소인美버지니아주의 윌리엄즈버그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의 하나로 17세기말에서 18세기에 걸쳐 식민지의수도로 번창했던 古風어린 곳.

이도시에는 조지·워싱턴、패트릭·헨리、토머스·제퍼슨등의 발자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적도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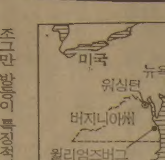
동서 1·5㎞、남북 1㎞에 달하는 윌리엄즈버그는 지난 1962년 부호 존·록펠러2세의후원으로 옛모습이 복원된 미국 최대의 관광 명소다。



◇7개국정상의 도착식이 있을 옛날 영국총독관저(上)。

최대의 觀光名所

○…각국 지도자 들은 이도시의 古風에 걸맞게 식민지시대의 가구와 판자로 인지붕、지붕창과 조그만 발등이 특징적인 프랜시스街의 구식가옥들에 머물고있다。



이 조용한 윌리엄즈버그는 7개국 정상들이갖고올 20세기 경제적 고민들로 가득찬 질문을맞아 다소 들뜬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회담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은 6천명이넘는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과 기자들이 묵을 호텔방만 5천5백개가 예약됐다。

頂上들 단독對坐

○…이번 윌리엄즈버그 회담의 특징은보좌관들을배석시키지않는정상들만의대좌라는점이다。

리건 美재무장관은 27일 TV회견을 통해『백악관의 보좌관들은 레이건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격의없는 부드러운 분위기로 이끌어가기위해 애써왔다』고 말했다。

언론과 각계 각층에서는 보좌관들이 배석하지 않는 이번 회담에서 레이건대통령이 복잡한 美경제및 외교정책을 어느정도 완벽하게 설명할수있을지 그의능력이 시험받게될것으로예측해왔다。

일부에서는 회담장의 7개국수뇌들이 헤드폰을 낀채 옆방에있는 통역관들의 말을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과거의 회담에비해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어렵게될 것이라면서 회담성과에 대해 회의적자세를보이기도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한가지주제로 인해 회담분위기가 서먹서먹해질 경우、의장자격으로 회의의 의제자체를바꿀지도모른다고 리건재무장관이말했다。

내가 두번째古參

○…대처 영국수상은 윌리엄즈버그로 떠나기전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은 국제문제에서 강력한영향력을발휘할수있을 것이라고기염을토했다。

대처수상은 정상회담에 가장 오래 참석해온 트뤼도 캐나다수상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가장고참 정상임을 시사하면서 자신이 이회담에서 제동역할을 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中曾根 생일맞아

○…레이건 대통령은 27일 윌리엄즈버그로 떠나기전 백악관에서 65회 생일을맞는 나까소네 일본수상을위해생일축하오찬을 마련했다。여기에는 아베·신따로(安倍晋太郎)일본외상이배석했다。【윌리엄즈 버그=李文熙특파원】

이·시리아 戰雲고조

레바논國境에 兵力증강

【다마스커스·베이루트(레바논)UPI=聯】시리아와 이스라엘은 27일 레바논 국경부에 군사력을 증강、양국간의 충돌가능성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서도 상대방에 대해 무력도발을 하지말라고 경고했다。

시리아는 이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규모 증원병력을 파견했다면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주둔 시리아軍에 도발을 하지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레바논동부에 새 對空미사일기지를 건설하려 준비하고 있으며 소련과의 군사훈련을 곧 실시할계획을 세우고있다고 주장、양국간의 무력충돌가능성을 고조시켰다。

군사소식통들은 시리아군이 레바논 시리아 골란고원등지에서 곧 대규모군사훈련을 시작하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확인했다。

日 사까다 앞바다 油層부상

地震여파… 천연가스氣泡도 발견

【東京=聯】여진이 아직도 계속중인 일본북부 야마가다(山形)縣 사까다(酒田)앞바다 해저에서 石油가 부상、폭20m 길이 4㎞의 유층을 형성함으로써 26일의 지진으로 해저유전이 분출했을지 모른다는 추측이 나돌고있다。

사까다市앞바다 11㎞해상에 부상한 이유층을 놓고 침몰어선의 기름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으나 분출중인 기름이 신선한 銀色일뿐아니라부근에서천연가스로 보이는 기포도발견돼해저유전설이유력하다。

同해역은 일본의 자원에너지청이 오래전부터 개발유망지역으로 지정하여 탐사작업을 진행해 왔었다。

현재 해상보안청이 기름을 채취하여 조사를 서두르고있다。

오나시스딸에 相續稅 5천만弗부과

그리스 租稅법원

◇이것이 문제의 가짜일기장

가짜 아돌프·히틀러 일기사건으로 최근 해고된 前슈테른誌기자 게르트·하이데만이지난 4월25일 히틀러일기의 발견을 발표하며 일기장을 흔들어보이고 있는 모습。함부르크검찰은 27일 그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스의 租稅법원은 선박왕 아리스토텔레스·오나시스의 상속인인 딸 크리스티나·오나시스에게 부동산 상속세로 5천만달러를 내도록 판결。

그러나 오나시스양과 그녀의 변호사는 이상속재산이 故아리스토텔레스·오나시스의 소유가 아니라 파나마국적회사의 소유이기에 면세되어야한다고주장.

조세법원은 상속인 오나시스양의 재산을 7천만달러로 평가、2천5백만달러의 상속세를부과하고 상속세신고 불이행의 벌금으로 2천5백만달러를부과、총5천만달러를 내도록 했다고。

海外토픽

디스코愛好에 警鐘

英소년팔·다리마비

15살난 한영국소년이、최근격렬한 디스코춤을 추고난뒤 팔과 다리의 감각이마비되어 8주간의 치료를받은끝에 다리의감각과 조절기능은 정상을 되찾았으나아직도 팔과 손의 일부기능은 마비된 상태라고。

에이레의 聖빈센트병원의 의사들이 의학 전문지인 브리티시·메디컬·저널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소년은 디스코춤의 일종으로 목의 격렬한 율동을 요구하는「헤드뱅깅」(머리흔들기)춤을 5분동안이나 계속추어 이같은 마비증세를 보였다는것。【AP】

"言論의 過當경쟁 지양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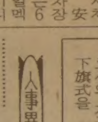
李文公、煽情的보도경향 安定저해

李振羲 문공장관은 28일『우리신문은 평소에는 모두가 權威紙를 표방하면서도 주요사건이발생하면 상업주의적 과당경쟁에 휘말려 선정주의적 제목이 되고 마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날 釜山의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신문편집인협회주최 세미나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정도법潛世衛사건과 일부재벌기업의토지재매입사건에서 볼수있었던 보도경향은 가진자와 덜가진자、못가진자사이의 계층적인 위화감을 첨예화시켜 국가질서전체를 뒤흔드는 극히 위험한 사례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安奉煥 기자 출국

청소년蹴球 취재차



본사체육부 安奉煥차장대우는 6월2일멕시코시티에서 개막되는 제4회세계청소년축구대회를 보도하기위해 28일 상오 NWA편으로 떠났다。

記者의 눈

엄포와 눈치作戰

27일 두번째로 실시된 漢陽아파트 채권입찰분양에는 0순위가 첫번째때보다 훨씬 적게몰렸다。1차 開浦現代아파트의 평균 7·1대1에비해 절반수준인 평균3·4대1。

일류대학교 입시때의 눈치작전을 또한번 보는 듯한 느낌이다。

평소 인기높은 狎鷗亭洞에는 경쟁이치열해 입찰가격이 크게치솟을 것을 지레겁내고 웬만한 0순위통장소지자들은 엄두를 못냈다。

그런가하면 漢陽아파트도 비인기지역인 可樂洞것은 일부비인기층에서 미달사태까지 나왔다。

오는6월4일의당첨결과는두경을열어봐야겠지만 狎鷗亭洞 한양아파트의경우 開浦現代때보다경쟁은낮았어도당첨에 필요한 채권매입액은 높을것으로 추산된다。

이제막 채권입찰제도가 시작된 참에 조급하게 이 제도의 성패를 점칠수도、또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런데 정부는 첫번실시한 결과만 보고 성공한것으로 판단、서울전지역에 확대실시할 방침부터 결정했다。

그러나 채권입찰제로 투기가 진정되고 있다기 보다는 0순위전매추적、자금출처조사、양도세강화같은 엄포、지원사격때문에 잠시 투기가 숨을 죽인것뿐으로 보아야 한다。엄청난 시중 유동자금은 언제라도 틈만 보이면 부동산、특히 아파트쪽에 다시 몰려와 투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첫번 실시결과 입찰액수준이 인근 아파트의호가수준보다 평균 70%이하로 낮아졌다는 점을들어 당국은「일단성공」한것으로보고 있지만 인근 아파트의 실세라는 것은 알고보면 채권입찰제실시방침이 발표된이후 엄청나게 뛰어오른것을 말하니까 오히려 앞뒤가바뀐 이야기다。또 채권입찰에따른 분양가격은인근아파트의 가격보다는 낮지만 채권입찰로 분양된 아파트에는 다시 프리미엄이 붙어있기때문에 프리미엄까지 감안하면 결국 기존아파트가격과 비슷해진다。

아직 0순위가갖는 최우선분양신청의특권과엄청난돈(표준분양가+입찰액)을 동원한데 대한 보상、그리고 경쟁이 있는 이상 당첨권그자체에 붙는 프리미엄으로 어차피 인기지역、인기아파트에 프리미엄은 붙게 마련돼있다。

뿐만아니라 과거 반포 주공아파트 분양때 실시해본 경험이있는 채권입찰에의한 분양방식이 몇번하다 흐지부지 없어진 것은 채권입찰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기때문이었다。

아파트분양방법에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투기가 과열되는것은 아닐것이다。그것은 돈의 속성— 보다 높은 이윤을 따라 움직이는 황금의 생리 때문이다。따라서 부분적인 분양제도만 갖고 해결하려들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투기대상이 안되도록 주택공급의 확대책과함께 돈이 찾아갈 수있는 경제여건부터 마련돼야한다。【金曉錫기자】

人事異動

韓國銀行

〈1급〉▲문서부 부속실장 柳時烈 ▲은행감독원부국장 金德洙 ▲〃 李承均 ▲〃 金源泰 (28日字)

新韓銀行

▲總務部長 宋吉憲 ▲融資〃 李貴在 ▲明洞支店長 安熙天 ▲西小門〃 李仁鎬 ▲盤浦〃 朴鍋 ▲汝矣島〃 李章桓 ▲聖水洞支店開設準備委員長 張利鎬 ▲蠶室支店〃 高雄實 ▲論峴洞支店〃 丁興鎭 ▲大阪事務所〃 芮秉杰 (28日字)

本社來訪

▲李肯求씨(東星제약대표이사) ▲李鍾旭씨(同종합조정실장)신임

社說

憲法이 빚을 지고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호랑이가 가죽을 남기듯ㅡ。

그러나 이름을 남기는 사람은 차라리 행운아다。지난날 맨주먹으로 日帝와 싸우다쓰러진 수많은 영웅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을 외적에 짓밟힌 굴욕의 시대라고 하기보다는、한민족의 영광은 커녕 이름 석자도 남기지않고 죽어간 수많은 영웅들의 시대였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런 영웅들중에는 이름 대신 한장의 종이쪽지를 남기고 간 사람들이 있다。호놀룰루에 사는 한국인 2세 마거리트·金씨의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다。그가 이제 마흔살의 딸의 손에 남긴 종이쪽지는 64년전에 발행된 25달러짜리『대한민국공채표』다。

이때는 3·1운동의 함성이 채 꺼지기 전이었다。1919년 4월23일 서울에 모인 국민대표회의가 비밀리에 정부를 구성하고、李承晩박사를 집정관총재로 뽑았다。『공채』는 李承晩이 집정관의 권한으로 미국에 만든『歐美위원회』가 金奎植위원장과 공동명의로 발행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명예와 신용으로 담보하노니…』공채는 이런 말로 독립된뒤 1년안에 갚을것을 밝히고있다。이자는 한해6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공채를 들고 마거리트·金씨는 지난2월 호놀룰루 총영사관을 찾아갔다고 한다。독립된 조국에『대한민국의 명예와 신용을 담보로』했던 공채를 갚아달라고 했다。그러나 당국은『임시정부명의의 채권에 대한 상환근거법이 없다』고 되돌려보냈다고 한다。지금까지 몇차례 이런 요구가 있었지만、모두 되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종이쪽지 한장을 남긴 先人앞에、부끄러운 일이다。憲法의 前文을 읽어볼 낯이없다。거기 이르기를 대한민국은『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다。나라의 正統性과 건국정신의 근본이 이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그『숭고한 독립정신』이 담긴 공채를 외면못한다。법이없다면 特例法을 만들어서라도 갚아야한다。공채증서를 사들여 독립기념관에 전시한다는등의 편법은『숭고한 독립정신』을 골동품化하는 것이나 같다。떳떳이 법을 만들어、憲法이 인정한 빚을 갚고、나라의 法統을 宣明하기 바란다。

레이건 親書

韓半島의 平和유지는 세계戰略的 意義를 헤아리게 하거니와、다른한편 오늘의 北韓은 불확실성에 가득찬 가장 위험스러운 挑發세력중의 하나로 간주된다。게다가 그 일부背景國의 팽창주의적 타산 또한 방심을 불허한다。

때마침 韓美양국 대통령들이 최근에 교환한 親書내용이 발표됨으로써 戰略的 狀況判斷과 抑止力유지를 위한 공동노력 그리고 적대세력의 가능한 도발형태등에 걸친 認識일치가 再確認된 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다。

全斗煥대통령은 26일 워커駐韓美國大使를 통해 레이건美國대통령의 親書를 전달받았다。워싱턴에서 열렸던 제15차 韓美安保協議會에 참석한 尹誠敏국방장관이 전달했던 親書에 대한 회신이다。

레이건 大統領의 親書는 우선 全斗煥대통령이 지적한 두가지중요한 대목에 대한 감명깊은『同意』를 천명하였다。첫째것은 平和수호를 위한『抑止力의 신빙성』을 정립하려면 침략에 대응하는 단호한결단력과 강력한 軍事力이 필요하다는 다짐이다。

무릇 침략을 抑止하기 위한 必須條件은、도발에대해 보복을 실시하는데 충분한 軍事力의 경비다。하나 軍事的能力의 발휘도 결국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으므로 有事時에 추호의 주저도없이 능력을 行動化하는、결단력이 필요하다。지금 서울과 워싱턴에 걸쳐 두 同盟國頂上의 그러한 결단력이 늠름히 과시된셈이다。

나아가서 北韓과 그背景國 동향에서 귀납되는 가능한 挑發형태의 하나로서「非正規代理戰」이 부각되어있는 실정이다。그들은 세계 최대규모인 10만特殊部隊를 우리의 후방 縱深깊이 투입하고자획책하고있으며、필요할때 正規戰도 배합시키려함은 이미 공연한 비밀처럼 관측된다。또 북괴를 그같은 代理戰으로 추동함으로써 이득을 노리는 세력이 잠재한다는사실도 결코 간과할바 아니다。

하나 침략적 好戰세력이 여하한 도발을 획책한다해도 이번 韓美양大統領의 일치된 결의표명에 비추어 우리 聯合軍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행동에 직면할것이 틀림없다。韓國에 대한 침략에는「誤判」의 소지가없으며 또「聖域」도 존재하지 않는다。全대통령과 레이건대통령의 親書교환은 抑止의 신빙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한것으로 평가된다。

解氷期의 經濟頂上

미국을 비롯한 西方 先進7國정상회담은 한국시간으로 오늘새벽에 미국버지니아州의 유서깊은 小都 윌리엄즈버그에서 막을 올렸다。앞으로 사흘동안 열리는 이 회담이 주목을 끄는것은、작년중 자유세계 총수출액 1조6천94억달러중 51%를 이들 7國이 차지한데서 엿보듯、세계경제의 큰몫을 차지하는 경제大國들이 당면한 경제문제의 처방을 모색하는 자리인데 연유한다。

지난 10년동안 세차게 오르던 국제석유가격이 처음으로 내림세에 접어듦으로써、그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 시작한것은 이번회담의 좋은 與件중 첫째로 꼽힌다。또 지난번 회의에서 西方측의 결속을 금가게한바、소련을 제재하기위한 禁輸문제의 異見이、이번에는 마찰요인의 자리에서 물러났다。각국에서 경기회복조짐이 나타난 사실도 이번회담의 與件을 전보다는 한결 부드러운것으로 만들것이다。

회담이 끝나야 정확한것을 알겠으나、보호주의무역、통화문제및 外債의 세가지가 이번 모임의 주요관심사인 것같다。

이들 문제에 대하여는 7국을 포함한 24선진국의 財相들이 지난중순에 모여서 1차적으로 토의한바 있으므로、정상회담의 결론은 그 연장선상에서 내려질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보호무역은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만큼 이를 철폐하여야 한다는데 각국간에 이론이 없다。그러나 각국은 자국의 利害에 따라날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7국 정상들은 전례에따라 보호무역을 배격하다는 추상적 결론을 내릴 것이다。

다음 통화문제는 두가지각도로 보인다。이번 회담의 고비를 이룰것으로 예산적자에서 비롯한 高金利정책과、이로 말미암은 달러貨의 강세가 다른 나라 통화의 약세를 몰고온다는 論理로서、주로 미국에 대한 건전재정 요구의 형태로 문제화하고 있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프랑스가 金本位制및 고정환율제에의 복귀를 주장하는데서 나타나고있다。이는 현안도 본질적으로는 一刀兩斷式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렵고、다만 문제를 前進的으로 해결한다는 정도로 매듭지을수밖에 없을것이다。

끝으로 발전도상국들이 지고있는 6천억달러의 外債문제가 심각한 논의대상이다。지난10년간의 高油價로 빚어진 인플레이션과 불황으로 타격을 받은이들은、그 大宗 수출품인 원시장품이 交易조건악화에다 先進國들의 수입규제가 겹쳐서、국제수지가 매우 惡化하였다。이에따라、기간연장·이자경감등 外債 再調整에의한 방법과 국제통화기금主動下의 구제방식등이 거론되고 있는터이다。

高油價의 폭풍우속에서 비롯한 7국경제정상회담은 이번으로서 아홉번째가 된다。그어느때보다도 이번 회담은 解氷期에 열리다고 하겠으니、우리는 기대와 아울러 추이를 주시하는 것이다。

政局往來

復舊작업 住民들 격려

全斗煥대통령은 28일 강원도 江陵에서 三陟郡臨院港까지의80㎞를 승용차편으로 왕복하며 海溢로 大破된 가옥에 직접들어가 피해상황을 물어 보는등 동해안의 海溢피해상황을 세밀히 살폈다。

全대통령은 이날 첫도착지인 臨院港에서 복구작업을 하고있는 주민들에게『모두 수고를하십니다』며 인사말을 건네고、복구작업을 마주치자 악수를 청하면서『잘도와주라』고 당부。

全대통령은 이어 三陟군청에 들러 업무보고를 받은뒤 郡內기관장및 유지들과 邑內의 한 대중음식점에서 불고기로 점심을 들며 해안경비를 맡고있는 장병들이 불필요하게 피로하지않게 하도록 軍관계자에게 당부。

全대통령은 또 墨湖港에 들러 出入港신고소에서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신고소밖에서 기다리고있던 오징어잡이 어부들과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다。

중앙청告別 기념寫眞

金相浹국무총리는 28일상오 종합청사로 이사하기전 중앙청3층의 집무실에서 外賓초청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결재한뒤 朴贊兢총무처장관、秘書陣、기자들과 다과를 들며 幕내린「중앙청時代」에 관해 잠시환담。

金총리는 집무실자리가 日政때에는 歷代총독이、建國후에는 李承晩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사용해온 방이라고 설명하면서『李承晩대통령이 과거 이건물에서 집무했을때 매우 언짢았을것』이라고말하고『그간 외국서 손님이 방문했을때 언제 지은 건물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고심했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이어 金총리와 총리실간부들은 중앙청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한편 朴贊兢총무처장관은 중앙청앞 광장일부를 막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厚生館도 당분간 공무원식당으로 계속 사용할 계획이며 또 중앙청이 정부청사로서의 기능이 끝남에 따라 28일 下旗式을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국기를 게양하지않을 방침。

"野黨의 뱃속 모르겠다"에 "누가 뱃속까지 들어가보랬나"

외무부 外交나 잘해야

民正黨의 權翊鉉사무총장은 28일상오 黨중앙정치연수원의 黨員교육修了式에서 격려사를 통해『우리는 創黨2년동안 경제·외교적인 면에서 史上 유례없는 업적을 쌓았다』고 自評하면서『이모든 업적은 당원여러분들이 일선에서 봉사와 희생으로 이룩한 결과』라고 致賀。

그는『그러나 일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혁의지로 이를 극복하고 있는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中央黨舍에 나온 李鍾贊총무는 외무부의「對美의회 로비스트활동방안 검토」움직임에 관한 보도에 대해『외무부는 정부외교나 잘해야지 의원외교까지 들먹이는것은 난센스』라고 못마땅한 표정。

그는『외무부가 공개적으로 美의회 로비스트지정문제를 거론하는 眞意를 모르겠다』며『朴東宣사건의 망령도 아직 채가시지도 않은데 외무부가 로비스트지정云云하는것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일』이라고 말했다。

장님의 지팡이 뺏는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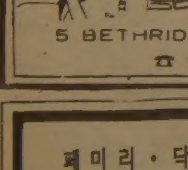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28일 당사에서『국회소집에관한 야당의 뱃속을 모르겠다』는 陳懿鍾民正黨대표위원의 발언과 관련『국회문제는 총무에게 맡길일이지 대표위원이 무엇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하는가』고 못마땅한표정。

李泰九·辛相佑부총재도『하기야 天下太平論者인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것을 보니 天下가 太平치 않은 모양』이라면서『국회에서 對정부 질문을 하지말라는것은 장님한테서 지팡이를 빼앗는 격』이라고 一鍼을 가했고 林鍾基총무는『누가 야당 뱃속까지들어가 보라고 그랬느냐』、金鉉圭정책심의회의장은『정말 모를것은 여당의 속셈』이라고 한마디씩。

한편 柳漢烈 사무총장은『이제 우리 정치문화도 투박한 때를 벗고 세련미를 갖출때가 됐다』면서『지금 추진중인 독자적인 黨후원회는 産苦를 겪고 있지만 지금은 出産해봐야 환영받을 시기가 아닌것 같다』고。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배성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길림산녹용, 진품웅담
원녹용, 야생녹용
※인삼, 녹용을 가루로도 만들어 드립니다.
⊙관절염 특효약
◎자연을 마시자!(천연식품)
◎힘을 마시자!(녹용원액)
◎정력을 키우자!(보신탕원액)
645 BLOOR ST.W.TORONTO
☎:(416)530-0522, 530-4900
지방문의환영

Ma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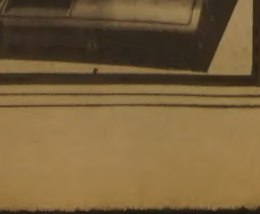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페미리·닥터
개업안내

DR.C.ANEKE M.D.

영업시간·월~토 오전9시~오후7시
301 SILVERSTONE DR.SUITE 205
MARTINGROVE SHOPPING CENTER
(NORTH OF ALBION, REXDALE)
☎ 745·9700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창립7주년) $595.00
분납가능 SANYO
취급품목
한글, 영문 타자기
금고, 카비넷, 책상,
각종 계산기, 각종도장



Tel. 532-0111
622-6754
교포 경영
김성수

아침 한때

古典을 읽자, 時調를 짓자

―국민情緒의 순화를 위해

具 常 〈詩人〉

현정부가 가장큰 과제로 내건것이 사회정화임은 세상이 다 잘아는바요 이에대한 다짐은 때마다 全대통령으로부터 재천명되어있고, 또 어느정도 공무원풍신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도 인정하는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가고 달이 갈수록 세상살이는 끔찍한 인륜적 범죄와엄청난 사회적 부정이 속출되고 있음도사실이다.

구체적인 예를 쳐들기를 오히려 피하지만 잔인한 4월이라고들 입담으며 그런참사가 일시적 흉변이기를 바랐으나 이5월도 역시 온갖 흉악한 사건이 꼬리를 물었다.

아니 앞으로도 우리네 삶의 둘레에 평온은커녕 어떤 예기치 못할 참변이 일어날지모른다는 불안에 국민 모두가 떨고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사회가 치닫는 타락현상에 속수무책과 같은 체념속에 빠져있기도 하다.

물론 앞서 말한대로 우리정부는 이런현상을 물리치려, 또 법규이나 제도를가지고 이를 다스리고 이를 시정하려들고 있으나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인간의 외적인 행동은 어느정도 제어할수 있으나 인간의 내면적 의식이 저지르는 범죄와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거나 이를 근본적으로 퇴치할수는없다.

그렇다고 이렇듯 나날이 심각해 가는 우리사회의타락을 실망이나 체념으로만관할수만도 없지 않은가! 물론 나라고 오늘의 이현상을 대번에 치유할 묘방이나 묘책이 있을리가 없다. 오직 이러한 문제의식을 인문종사자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측면에서 내나름대로 생각해본 것을 소박히 적어볼까 한다.

그런데 아무리 돌팔이지만 처방에 앞서 먼저 밝혀야할것은 우리사회의 병리진단이다. 이역시 인문적입장의 판단이지만 이사회의 타락현상은 물질주의에서 오는 국민의 규범의식의 마비와 기술주의에서 오는 정서의 고갈때문이라고 나는 본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규범의식의 마비와 정서의 고갈을 초래하였는가? 이것은 두말할것 없이 우리의 근대화작업에서 내걸었던 경제 제일주의와 그 실용주의가 빚은 기술위주의 정책의 소산이다. 이것은 물론 헐벗고 굶주리는 국민의 선결과제인것도 틀림없었지만 그것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정신에 심각한 절름발이 현상을 일으킨것이 오늘의 현상인것이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물질적 추구인 경제발전과 병행해서 어떻게 국민의 규범의식을 회복시키고 정서를 순화시킬수 있을 것인가? 물론 오늘날에도 종교나 교육이 이런소임을 맡고 있고 또 수행중에 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종교나 교육이 국민의 규범의식을 바로 잡고 정서를 순화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좀 극단적인 추궁이지만 오늘날 한국의 1천5백만명을 헤아리는 불교, 기독교를 비롯한 각 종파의 신자들이 가령 자기네 교리가 가르치는 대로의 어느 정도만 실천행이 있다면 우리의 세상은 얼마나 밝아지랴? 또한 교육역시도 그 정책자체부터 도덕적 규범에서 현상을 어겨해 나가려 들기 보다 현상의 효용성이나 수습이나 미봉으로 시종하는 느낌이어서 국민의 규범의식 자체를 항상 흔들리게 한다면 과언일까? 이것을 나의 말의 맥락에서 말하라면 우리 종교나 교육도 역시 물질주의, 기능주의에서 오는 능률주의와 실용주의, 경험주의에서 오는 현실주의에 의식, 무의식간에 빠져들고 있다 하겠다.

또한 국민정서의 면에 있어서도 매한가지로서 한마디로 말해 텔리비전의 연예프로나 신문소설에 모두가 소롯이 매달려있는 형편이니 흥미본위의 감각적쾌락만으로 어떻게 국민정서의 질적 향상을 이룬단 말인가?

나는 규범의식의 회복과 그함양을 위하여는 동서인문고전읽기와 정서의 순화와 그 함양을 위하여는 시조짓기를 범국민적운동으로 벌이자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오늘날 우리 국민일반은 인간정신의 기본적 영양이라고 할 동서인문고전에 맹목(盲目)이다. 이것은 일반뿐 아니라 상당한 지식층 나아가서는 인문분야를 제외하고는 사회각분야 지도층이나 중진·중견층에도 매일반이다.

가령 동서인문고전에 있어 동양의 「논어」나 「사기」란든가, 서양의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나 〈보에티우스〉의 「철학의위안」등 필독의책들이 상당한 지식층의 사람들에게도캄캄이요, 또 예사요, 어느 정도 그책의내용을 안다해도 사전의 풀이같은 지식이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글을 읽는다면, 즉 학문에 나아가면 인간의 규범을 익히기에 반드시 읽어야할 일정한인문고전이 선택되어있어 이것을따로외우다시피 아니하고는 지식인으로 행세를할수가 없었을뿐아니라 더구나 현실에 참여가 불가능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르침이 심신에 아주 배어있어 삶의자세를 스스로 통어,규제할 수가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일반은 가령 교과서나귀동냥으로 논어의 한두절,불경의 몇귀절, 성서의 몇마디를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는 그 가르침이 실제삶에 반영될 수가 없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간 각자의 자연양심만 위주로 사는 폭인데, 진리에 매달리지 않은 인간의 마음이란 고삐없는 망아지와같이 서로가 제멋대로여서 종잡을바가 없는 것이다.

하기는 저러한 고전읽기운동이 朴대통령 정권때 정책적으로 일시 있었다. 그랬던 것이 그 운영체의 부실로 폐지되었는데 운영체의 결함은 그것을 시정하면 되는 것으로 가령 오늘의 「청소년연맹」같은데서 그 핵심사업으로 떠맡을만 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음 시조란 다 아다시피 조선조때 한글이 창조되면서 발전된 우리겨레 고유의 정형시로서 궁중에서는 임금님으로부터 화류계의 기생에 이르기까지 즐겨짓고 즐겨부른 민중의 시다. 일제때 그만 쇠퇴했었으나 해방후 전문가들손에서 부활, 발전되어 왔고 이즈막에와서는 뜻있는 신문사와 잡지사들이 국민정서순화의 일환으로 그운동을 펼치고 있는것은 몹시 다행하고 고마운 일이다.

이 시조는 그저 일상적인 말에다 글자수효만 맞추면 그우열은 고사하고 우선되는 것이니 누구나 지을수있어서 혼자서는 물론이려니와 가족끼리, 또는 이웃끼리의 모임같은데서 해나간다면 그 친목에도 아취가 있을것이요, 우리 정서 자체를 은연중에 윤택하게 하고 또진선미에 나아가게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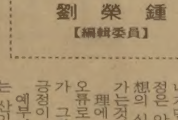
그래서 내가 나의제안을 좀더 적극화한다면 인문고전 읽기나 시조짓기를 각급학교 교과과정에 넣어야할 뿐아니라 바람직하기론 각급학교 진학시험이나 각종국가고시, 또 각직장의 취업시험에도 삽입되는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안이 어쩌면 이변(異變)처럼 들릴지 모르나 우리나라는 고려때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인문고전과 시문(詩文)으로 국가고시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해주기 바란다.

이로(理路)를 이쯤에서 거두려하거니와 이제부터라도 저러한 고전읽기와 시조짓기 운동이 일어나서 규범의식이 견고하고 정서가 순화된 우리의 내일이 십년후,이십년후 아니더면 후일에라도 온다는 확신만 선다면 오늘의 이 참혹하는 범죄와 부조리의 세상살이를 견디기에 한결 낫지않을까?

메아리

남산考



劉榮鍾 【編輯委員】

새삼스럽지만 우리나라는 산의 나라다. 높고 낮고, 우람하고 아기자기한 산들이 마치 樂譜처럼 국토를 오르 내리며 춤춘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것은 이 산들의 덕택이며,시원 시원한 평야가 적음도 산의 탓이다.六堂선생의 말대로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온 나라가 콩멍석을 펴 놓은것 같다.

남을 보면 나와 비교하게된다. 다른나라에 가면 고국과 견주어 본다. 조선조 정조때 실학자 연암 朴趾源이 그랬다.淸에보낸 사절단 수행원으로 중국땅에 들어섰다. 이웃나라의 산세를 쳐다보며 멀리 「한양생각」에 잠겼다. 그 山情이 「열하일기」에 나온다.

燕巖은 중국의 봉황산을 대한다. 「전체가 돌로 깎아 세운듯 평지에 우뚝 솟아 손바닥위에 손가락을 세운듯 하다. 연꽃 봉오리가 반쯤 피어난듯 하고, 여름 구름의 기이한 변태나 아름 자세와 같아서 뭐라 형용키 어렵다. 다만 맑고 윤택한 기운이 모자란는것이 흠이다」

그는 서울의 道峯과 삼각산이 금강산보다 낫다고 말했다. 파란 가을 하늘아래비친 금강산이 제몸에서 우러난 윤기와 자태가 없음을 깊이 탄식했다.

그뒤에 배를 저어 내려 오면서 한양을 내다보았다.「삼각산의 모든 봉우리가 깎은듯 파랗게 하늘에 솟구쳤다. 엷은 내와 짙은 구름속에 밝고 곱게 아리따운 자태가 나타났다. 또 일찌기 남한산성에 앉아 북으로 한양에 눈을돌리니 마치 물위의꽃,거울속의 달과 같았다」

이같은 표현은 서울을 수도로 정한 태조의 뜻을 기리며 지키려는충성의 과찬이거나 편견으로만 몰아 붙이기엔 관찰이 아주 세심하다.

삼각산과 남산은 사실상 서울의 기둥이며 軸이다. 두 山勢가 버티고 서있지않은 서울이란 도시는 너무 밋밋해 상상하기조차 싫다. 북악 남쪽과 남산 북쪽이 帝王 만년의 터가 되어 하늘과더불어 다함이 없는것으로 알고 살아온것이 조선조시대의 우리조상들이 었다.

오기 하나로 살아가려는 선비들의 카랑카랑한 헛기침 소리만 들리던 남산골에,그 맥을 끊을듯 匕首를 들이댄것은 일본이다.왜성대니 신사니 한는것을 지었다. 애꿎게도 남산은 침략史의 증언場이 되어버렸다.

해방이 되자 남산 기슭은 다시 「꼬방동네」의 출발점으로 등장했다. 분단史의 뼈아픈 상처다. 「20세기 한국痛史」를 남산은 서럽게 받아 들였다.

사람들은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본는 어리석음을 자주 탓한다. 지금 남산엔 산은 안보이고 빌딩숲만 보인다. 도시계획의 정책不在가 자연不在를 드러낸 것이다.

「건물의 철갑」을 두른 남산의 제모습을 찾아 살리고 지켜 가겠다는 정책의 결단이 내려지자, 「잘했다」는 찬성의 소리가 높고 칭찬이 자자하다.

이것이 남산의 오늘을 만들어낸 원인을 따져보고 그를 교훈으로 삼을 계기다. 따지고 든다면 까닭은 「無理」 그것이다. 개발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무리가 따르면 거꾸로 돌이키기 어려운 부담이되어 돌아온다는것을 소홀히 알았다.

無理가 지나치면, 우리몸엔 병이 생긴다 기계에도 고장이 난다. 자연은 큰 禍를 입고, 인간에 苦를 남겨준다.

오래 닮리는 마라톤경기에서도 오버페이스는 기권을 재촉하는 원인이 된다. 무리해서 잘되는일이 없고, 理가 앞서면 순탄하게 전진할 수 있다.

다스린다는뜻의 理자는 길(道)과 통한다고 한다. 理由가 명백하면 理解를 구하고 理致에 맞게 나가면, 막힐데가없고 탈이날 걱정은 안해도된다. 환상이아닌 理想의 실현도 이런길을 밟고 따라가는것이 아닐까.

理에 부정적 글자가 결합하면 오류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無理가 그렇고 非理가 그렇다. 理는 긍정이 달린는 궤도다.

예부터, 팔도산맥의 祖宗이 되는 산이라하여 12종산을정했다. 남한에있는것만 꼽으면 삼각산을 비롯,오대,속리,장안,지리,태백산의 여섯개다. 이밖의 명산으로 설악과 한라산을 빼놓을수없다.

남산을살린다는 꿋꿋한 의지가 이곳에도 뻗어나갈줄 안다. 「無理의 손」이 닿으면 못쓴다는 남산의 교훈이 살려 지리란는 기대를 포개 본다.

週末政局

"國會는 꼭 열려야 한다" 與野 同聲이지만…

―속셈 서로달라 2週째 平行線

與 案件성숙안돼 來10일이후로
野 政治議案중심 對與공세태세

○…6월임시국회소집을 둘러싼 與野간의 是非가시작된지는 꽤 오래된셈이지만 아직도 날짜마저 잡지 못한채 방황하고 있다.

지난 26일밤 열린 정부와 民正黨간의 黨政조정회의에서 6월10일 이후에나 국회소집을 검토해 보자는 소극적인 결정이 있었을뿐 與野간의 협상에서는 2주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平行線의 주장으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6월10일이후에 소집을 검토한다는것은 그때까지 임시국회에서 다룰법안들이 대강간추려질것이라는 근거 에서나온 것이기 때문에 소집방침이 확실한것만도 아닌것같다.

民正黨의 李鍾贊 총무는 『반드시 소집될테니 두고보라』고 장담하지만 국회운영방법에대한 與野의 異見幅이 여전해과연 소집이 되며 또 언제열릴것인가는 速斷하기 어려울것 같다.

與野는 모두『국회는 반드시 열려야한다』고 異口同聲으로 부르짖고 있지만 속셈은 제각기 다르다.

民正黨으로서는 오는10월초에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총회의 준비관계로 지난봄 국회막바지에 6월에 국회를 한차례 더연다는 원칙을 야당과합의했던것이다. 그러나 막상 6월이 눈앞에닥치고보니 긴급히 다뤄야할 條件도없는데다 야당이 본회의 對정부질문등을통해 정치공세까지 준비하고있어 與黨으로서는「반드시 열필요가 없지않는냐」는 不必要論으로 기우는듯했다.

그러나 약속은 해놓고있는터에 야당은 계속 소집을 구호처럼 외치고 있어 회피한다는 눈치를 보이지않게 하기 위해서라도「국회를 열겠다」는 얘기를하고 있다.

『국회가 열려도 좋고 안열려도 상관없지만 생산성이 문제』라는 權翊鉉民正黨사무총장의얘기는이러한 맥락에서음미해볼만하다.

民韓黨이나 국민당등 야당쪽에서는 국회소집이 萬病通治인양 입만벌리면 주장하고있으나 지도부의 내심은 반드시 그런것만도아니지 않느냐는얘기도있다. 국회를 열어보았자 그들이 주장하는 國會法 地自制등 政治議案에서 民正黨으로부터 얻어낼것이 별로없다는것을 잘알고 있기때문이다. 그런 마당에 정부여당이 제출한법안만 통과시켜주는 들러리役을 自任할수도 없는것이다.

○…與野의 이같은 속은 속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초리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는 與野의입장을 고려한다면 결코 국회를 열지 않고 넘기지는 못할것같다.

與野의 속셈이나 속사정이 아무리 국회를 忌하고 싶다고 해도 국회를 기피할수 있는 명분을 찾기는 어려울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열릴 경우 어떻게 운영하느냐는데 대 與野는 많은 견해 차를 드러내고 있다.

야당은 국회가 열리면으례 對 정부질문을 본회의나 常委에서한다는 常例를 들고 나오고 있다. 야당으로서는 그들의 정치적 주장을 펼수 있는 무대로서 이번 국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民正黨은 4월국회가 끝난지도 얼마되지않는데 對 정부질문을 할만한 거리가 없는만큼 주로 법안만 처리하는 立法국회로서 이번 국회를 常委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때 야당의 「정치국회」戰略과 여당의「政策국회」作戰이 한바탕 파란을 가져오리라는 전망도 나올수 있을것 같다.

더구나 야당은 국회법이나 地自制등 소위 정치의안에 대해서도 심의 처리에 대한 어떤 보장을 요구할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상당한 論難이 예상된다.

○…국회가 열리면 다룰 주요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民正黨측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3건과 이미 黨政협의가 끝났거나 진행중인 19件등을 포함하여 약40件을 計上하고있다.

이들법안들은 소관상임위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같다.

▲法司委=民法 개정안 商法〃주택賃貸借보호법〃 集合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안假登記담보등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검찰청법〃

▲內務委=새마을지도자 연수원설치법폐지안, 부동산仲介업법안 消防法 개정안 輕犯처벌법〃 請願경찰법〃 銃砲·刀劍·화약류 단속법〃 用役경비법〃

▲財務委=附價稅法〃國庫金단수계산법안

▲經科委=遺傳工學육성법안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안

▲國防委=資源관리법안

▲文公委=대학교육협의회법안 대학원 졸업생등의 兵役特例 조치법 개정안

▲農水産委=농업창고업법개정안

▲商工委=高壓가스안전관리법개정안 가스 사업법〃 液化석유가스관리법〃 산업설비수출촉진법〃

▲保社委=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공중보건장학을위한 특례법〃 해외개발공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직업안정법〃 産業災害보상보험법〃 직업훈련관리공단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 관한법〃

▲交通委=有線방송사업법안 港灣운송사업법안 海上운송사업법개정안 船舶직원법〃

▲建設委=토지개발공사법개정안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인 등이다.

이처럼 民正黨은 정부가 제출한 약40건의 법안처리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인 반면 民韓黨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회법개정안 地自制관계법및 言基法 개정안등 이른바 政治議案을 포함한 17개 繫留법안과 1개의 對정부건의안(학생독립운동기념일제정)등 총18개의 議案처리를주장하고있다.

民正黨은 6월국회에서 처리할 40건의 법안중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등 12건은 이미 심의를 끝냈고 대학교육협의회법등 24건은 심의중이며 물의를 빚었던 불교재산관리법 개정안 鄕校재산관리법 개정안 미성년자보호법개정안등 4건은 철회할 방침.

○…지난 1백16회 임시국회때 여 야간의 최대의 정치쟁점으로 波高를 높였던 국회법 개정안과 地自制 실시문제등 이른바『정치議案』이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는 아직 未知數.

우선 예상할수있는것은 『개정하라』『못하겠다』고 샅바싸움으로 되풀이해온 논쟁은 뒤로 물러날것같다는것이다.

국회법문제는 국회운영제도연구小委가 새로 발족되어 활동을 벌이고 있고 地自制문제역시 6월에는 중간결론을 내리기로 되어있어 어떻게보면 이제贊反논쟁은 한물간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에따라 與野는 정치의안에대한 사전整地작업을 벌이고있는 눈치이다.

물론 이러한 整地작업이 어느시점에 어떤결말을 맺을지는 예측키 어려운상황이지만 대체로 정치의안을 둘러싼 지금까지 여야의 『對立的입장』이 『타협적자세』로 바뀌고있는 느낌을주고있다.

동시에 국회법개정안을 제출해놓고있는 民韓,국민당등 野圈도 종래의 改廢투쟁의 도전적입장에서『미진한 부분에 대한 연구補完』의 자세로 바뀌었다.

地自制실시문제에 있어서도 6月末까지 중간결산을 하자는 쌍방의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당분간 국회자체에서 본격적인 이슈로 등장하는것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특히 지난 임시국회폐회이후 발족한 국회운영연구제도 小委(위원장 尹碩淳의원)는 그동안 3차례회합을가졌고 오는 6월3일에는 국회법을 條文別로 逐條 심의하는등 적극자세를 보이고 있다.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각정당간부들의 발언은 그들의 전략과 속셈을 직접 간접으로 드러내 놓고 있다.

民正黨의 陳懿鍾대표위원은『의원들이 모이면 異見이 나오겠지만 이번국회는 법안처리에 중점을 두는 국회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權翊鉉사무총장도 『국회가 열리면 무언가 생산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해 「政治性」의 배제를 암시하고 있다.

반면 民韓黨의 柳致松총재는 『黨이 제출한 정치議案심의가 마땅히 진전이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林鍾基총무는 『구체적인 원내전략은 총무회담이후에 밝힐것이며 내용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회법 地自制法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다루도록 하겠다』 金鉉圭정책심의회의장은 『몇가지 굵직한 政策代案을 마련중이며 夏穀수매값도 중점적으로 따지게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6월임시국회는 한때 不發될 기미를 보이다가 일단 召集원칙으로 기울어져 구체적인 운영문제는 이번 주초 총무회담을 통해 절충되겠지만 열릴경우 與野 모두 하고싶은 얘기와 주장을 펼것으로보아 뜨거운 국회가될것은 거의 틀림없을 것같다.

소 잃고 난후 외양깐 고치시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행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

보험대리인 김 종 조는 여러분에게 좋은 상담역이 되드릴겁니다.

자동차 — 생명 — 교육 — 사업 — 적금 — 부동산

◎ 모든보험은 한곳에서!

김 종 조 종합보험은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가 자랑입니다.

651 BLOOR ST. W.

535—0028
535—7200

김종조 종합보험 대리점

博物館으로 變身하는 中央廳의 榮辱57년

歷史의 主舞臺가 歷史의 保管所로

서울 文化名所로 86년까지 새단장

86년아시안게임이 한창 열리고있는어느날 말레이지아의한 운동선수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왔다。그는 올림픽타운에서 지하철을 타고 효자동입구 역에서 내렸다。지하역 개찰구를 벗어나자 마자 시원스런 공간이 펼쳐졌다。그곳에는 한국문화를 한눈에 알수 있도록 국보급작품의 복제품을 전시해놓았다。호기심에 앞서 한참 발길을 떼지못하다가 지상으로 올라왔다。

박물관 서문에 들어서니 웅장한 석조건물이 눈앞에 전개되고 그 뒤편으로는 경복궁너머까지 정원으로 쭉 연결돼 있다。박물관 경내가 3만평은 훨씬 넘어보였다。

서문 바로 옆에 있는 후생관이란데를 먼저 들어가 봤다。박물관이 되기 전에는 총무처 외무부 문공부등의 식당으로 썼다는 이 건물의지상2층은 여전히 식당으로·그대로 사용했다。가운데층인 지상1층에는 어린이박물관간판이 걸려있다。이천년은 어린이들이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는 별도의 박물관을 만들어놓고 국민교육에 신경을쓰고 있는것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청년은 지하1층에있는 박물관 특설강좌를 보고 또한번 놀랐다。가정주부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성인수강자가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다 그들의 수강태도가 너무 진지했기 때문이다。박물관이 경복궁안에 있을 때인 지난 77년에 처음 개설하여 박물관대학이라고 불려왔다는데 10년동안 수강자수는 3천명가량이라는 학예관의 설명이었다。

박물관교육은 성인들의 평생교육과 연결시켜 민족의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게 구성돼있었으며 학생들의 경우는 초중고대로 나누어 학교교육의 연장으로 실시하고있다고 했다。교사들에 대해서도 강좌를 따로 열어 재교육하고 있었다。

「日」字 정원 메워 강당·창고로 民族魂 심을 산 敎育場 활용

박물관 전시실은 본관 2층부터 5층에 걸쳐있고 1층전부는 사무실로 썼다。1층에는 관장실을 비롯 각부사무실과 도서실 회의실 세미나실이 들어있고 日字모양의 중앙정원을 메워 유물창고와 강당으로 꾸며놓았다。

전시실은 각기능을 살릴수있게 체계화하여 考古 미술 역사 조각 특별실로 나누어 배치했고 동양과 서양부를 구분하여 전시, 서양문화를 비교할수 있게 돼 있다。

2층 전시실에 들어서니 맨먼저 한국사의 흐름을 문화사적인 조명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를 그려 놓았다。본관 2~3층의 각방은 考古部、美術部、歷史部가 주류를 이루었다。가운데뜰에 신축된 2층에는 불교조각실 벽화가、본관 3층에는 신안유물실이 따로 전시돼있는 것이 특색이었다。

4층은 중국 중앙아시아 일본등 인접지역의 문물을 모음으로써 한국문화와의 상호관계를 밝힌 東洋部 그리고 기독교문화를 주축으로한 西歐문물을 비롯 그밖의 세계나라 문화를 망라한西洋部로 꾸며져 있다。5층은한쪽이 도자기등 특별시설이고 나머지는 모두 학예연구실。말레이지아청년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주마간산식으로 둘러본는데만도 하루가 꼬박 걸렸다。

중앙청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의 개축공사를 끝내고 개관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본 것이다。처음부터 박물관용도로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앞의 상상도보다 더 잘 꾸밀수 없을지 모르나 왕궁을 박물관으로 활용한 佛루브르박물관등의前例를 최대한 참고삼아 세계 유수의 박물관을 만들어주기를 하자들은 한결같이 바랐다。

행정1번지에서 문화1번지로 탈바꿈하는 役事는 빠르면 6월중순、늦어도 7월초에 착수된다。문화공보부는 6월중순까지 중앙청의 국립중앙박물관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확정짓고 곧이어 건물개축작업에 나선다。

박물관이전공사는 크게 개축 신축 철거등 3개 공사로 나누어 실시된다。개축은 중앙청기존본관건물과 厚生館이 대상이되고 중앙청 본관의 中庭부분과 기계실은 새로 짓게된다。현재의 중앙청건물은 日帝가 조선총독부로 지을때 지붕에서 내려다보면 「日」字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놓았다。이 모양을 없애버리기위해 건물안에 비워놓은 중앙정원을 새 건물로 메우게 된다。

기존본관 (9천91평) 과 신축한 中庭부분 (1천5백80평) 을 합친 1만6백71평의 중앙청본관 건물과 厚生館 (3천4백42평) 을 제외하고는 다른건물은 모두 헐어내고 조경한다。

문공부와 해외공보관이 각각 들어있는 제1·2별관 국립영화제작소 공보국 사진과등이 자리잡은 제3별관 총무처의 문서창고등 6개동은 박물관이전이 완결되는 86년6월안에는 다른곳으로 옮겨가게 된다。

景福宮안의 중앙박물관 자리에는 민속박물관을 옮겨 중앙청과 경복궁을 한데 묶은 문화휴식공간으로 꾸민다。박물관이 이전되면 太平路~世宗路~중앙박물관~景福宮에 이르는 기다란 문화의 축이 서울의 새명소로 등장하게된다。

박물관개축공사는 박물관의 기능을 무덤의 기념물이 아닌 생동하는 知的오락장으로 만든다는 취지아래서 진행된다。박물관은 단순히 진열의 장에 그치지않고 보고 깨닫고 창조할수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수있는 휴식공간과 교육시설을 꼭 만들어 놓아야한다。

「행정의1번지」중앙청이 우리나라 최대의 문화센터인 박물관으로 개수하는데 들어갈 비용은 3백억원정도로 잡고있다。우선 올해에는 건축비 건설본부 운영비 설계부대비등에 26억원을 들인다。

박물관개축공사가운데는 주차장시설도 포함돼있다。지상 9백70평외에 2천평의 지하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물관이전은 시설만 완전히 갖추어놓았다해서끝나는것이아니다。주체적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주민의 교사역할을 다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예관양성이 시급하다。현재 중앙박물관의 학예관은 계속 대학에 뺏기고있어 절대수가 부족한 실정。박물관이전에 대비해서최소한 2、3백명의 학예관을 확보하지않고서는 그기능을 다할수없는게 학자들의 지적이다。

유물구입비의 현실화도 급선무의 하나。새로 신설될 歷史部 東洋部 西洋部의 수장내용은 매우 빈약한데다 중국 古銅器는 한점도 없을정도인만큼 예산배정을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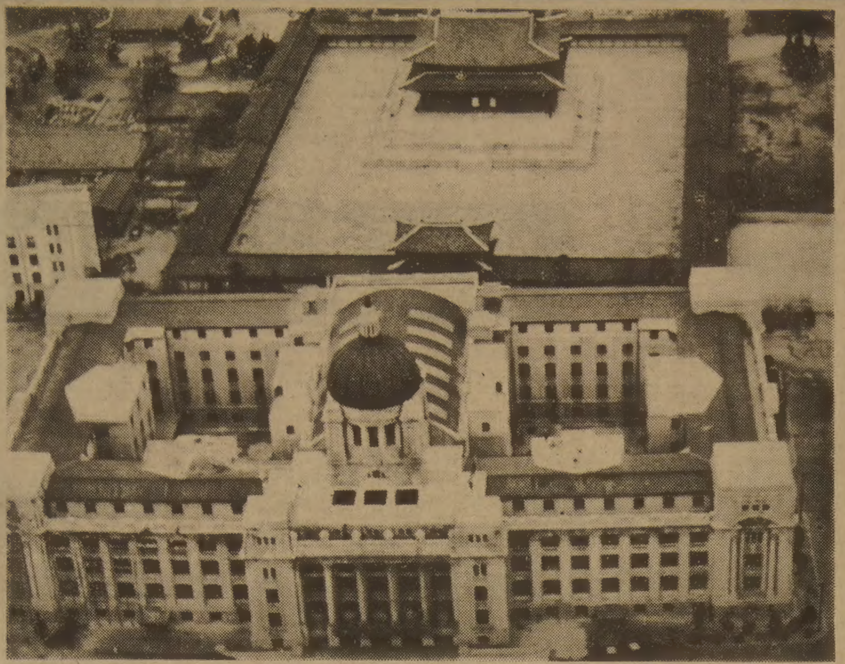
박물관 이전에 따른 직제개편도 불가피하다。현재의 직을 격상시켜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두고 실지 운영은 운영위원회 같은기관을 설치하자는 여론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개축공사는 85년6월까지 끝내고 수장품이전은 85년초부터 시작 86년6월까지 끝낼예정이다。국립중앙박물관은 건물이전에 걸맞는 시설과 운영으로서 우리문화 수준을 대표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추진돼야할것같다。

【李忠雨기자】

◇중앙박물관 층별 배치계획

층	本館(개수)	中庭(신축)
1층 (2,755평)	사무실 기계실 식당 도서실 회의실 세미나실	유물창고(東) 강당(西)
2층 (2,332평)	考古部·美術部·歷史部	불교조각실(東)
3층 (1,956평)	考古部·美術部 특별전시실(신안유물)	벽화등회화실(西)
4층 (1,998평)	東洋部	西洋部 특별전시실 (도자기)
5층 (1,630평)	학예연구실	



◇中央廳의 鳥瞰圖。日帝식민통치의 상징이었던「日」字건물이 동쪽을향해 가로누워 뒤편의 景福宮 勤政殿 王氣를 누르고 있다。이제「日」字를 이루는 中庭은 박물관으로 개축할때 전시관이 들어차「■」字건물이 된다。

建國땐 議事堂…6·25후 放置도 總理19명 거쳐간 行政 총본산

中央廳은 日帝가 朝鮮王朝의 심장부이던 경복궁 勤政殿앞터에 光化門을헐고 지은植民통치의 상징으로서 우리로선 치욕의現場。그래서 日帝殘滓를씻어내 박물관에보존、後世에 교훈으로 삼게 하자는데서 중앙청의 박물관화계획이 추진됐고 1단계로 중앙청에 入住해 있던 행정部處들이 자리를 비워주게 된것이다。중앙청건물이 지어진것은 57년전인 1926년10월1일。이날 日帝는 한국強占 15년을 기리면서 2만9천4백80평의 垈地위에 建坪2천1백15평(延建坪9천4백71평)의 총독부청사를 준공하고 自祝宴을 가졌다。

건축 당시엔 東洋최대

○…당시총독부청사 건축내력을 기록한 朝鮮총독부廳舍新營誌에 의하면 건축계획에 착수한것은 1913년。

3년후인 1916년에 독일인건축기사 케데라란다와 臺灣총독부技士였던 노무라(野村一郞)、조선총독부기사 구니에다(國枝博)、한국인 朴吉龍에 의해 설계도가 완성됐고 6월25일 데라우찌(寺內)총독등이 삽질을 했다。

10년후 당시 日貨 5백90만엔이라는 巨額이 투입되어 동양 최대인 5층石造건물의 총독부청사가 완공됐다。坪當 건축비는 당시 쌀 51가마값이 들었다는 계산。

20년간 총독정치의본산이던 이건물은 해방이후 美군정청으로 쓰였고 48년 制憲국회가 이곳에서 열릴때쯤「캐피틀 홀」이라는 미국인들의 呼稱을 우리말로 直譯、「中央廳」으로 불리어 지게 됐다。

○…중앙청은 그때부터 국회의사당으로 쓰이면서 7월17일 헌법공포식、7월24일 正·副統領취임식을 거쳐 8월15일엔 대한민국정부수립식이 이곳에서 열려 우리나라 建國의 현장이 됐다。

정부수립초기 당시 李承晩대통령은 景武臺를 관저로만 사용하고 집무는 주로 중앙청에서 했다。

바로 지난25일까지 총리집무실이었고 당시 李대통령의 집무실이던 자리가 歷代日帝총독 집무실이었는데 중앙청엔 부통령과 국무총리의 집무실도 함께 있었다。

李대통령은 이건물을 정부청사로 사용하는 것이 싫었던지『이집을그대로 놔두고는 내가 눈을 감을수가 없다』며 철거하기를 주장했으나 당시의 재정형편상 어쩔수 없어 안타까와 했다。

6·25로 정부가 釜山으로 피난가자 중앙청은 北傀군의 수중에 들어가는 受難을 겪어야했다。9·28收復때 해병대원들에 의해 中央廳옥상에 태극기가 게양됐고 그후 총무처인사국과 경리국이 폐허가 되다시피한 중앙청내에 사무실을차렸으나 1·4후퇴때 다시 이를 버리고 南下의길에 오르기도 했다。전쟁이 끝나고 수도가 다시 서울로 올라 왔으나 정부는 戰禍로부서진 중앙청을 청사로 쓸수없었고 또 李대통령의 중앙청기피증때문에 수리할 엄두를 내지못했다。

귀신이 나올것처럼 썰렁한채 중앙청본관은 사실상 5·16때까지 버려졌다。

그러나 쓸만한 상태로 남아 있던 제1別館(現해외공보관)에 총무처와 농림부등이 입주했고 4·19직후 許政過渡首班이 2층에 집무실을 가졌으며 民主黨때 張勉총리역시 이자리에 집무실을 갖고 있으면서 숙소는 반도호텔을 썼었다。

그후 중앙청건물은 63년 대대적인 補修공사를 끝내고 총리실등 중앙청사로서의 구실을 시작했다。68년 景福宮의 정문이던 光化門이 지금의 제자리에 復元돼 중앙청의 정문이 됐다。

○…중앙청은 정부수립후 6·25전까지 李대통령이 집무실로 사용한것 외에는 대부분 총리가 주인으로 앉아 행정을 이끌었다。63년이후 20년간 중앙청의 주인은 宋堯讚·金顯哲내각수반、崔斗善、丁一權、白斗鎭、金鍾泌、崔圭夏、申鉉碻、朴忠勳、南悳祐、劉彰順、金相浹국무총리등 12명。

국무총리직제가 없던 제1공화국후반의 5년간 이전에 중앙청에서 집무했던 국무총리는 署理까지 합해 李範奭、張勉、張澤相、白斗鎭、卞榮泰총리、申性模、許政、李允榮총리서리등 8명이므로 모두 20명의 총리가 배출된 셈。그러나 白斗鎭씨는 총리를 두번 역임했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셈하면 19명이된다。

이중 最長壽총리는 丁一權씨로 在任 6년7개월、그다음은 金鍾泌씨의 4년6개월、崔圭夏씨의 3년11개월의 順。

最短期총리는 許政씨로 4·19후 과도정부를 이끌다가 제2공화국헌법에 따라 총리가돼 2개월4일동안 在任했고 총리署理까지 치면 李允榮씨가 13일로 가장짧은 기간동안 총리를 역임했다。

재임 6개월을 넘기지 못한 短命총리도 많아 張勉(첫번째임기)、張澤相、卞榮泰、崔斗善、白斗鎭씨(두번째)등 6명이 있고 申性模、李允榮、朴忠勳씨는 총리서리만 지내다 물러났다。

○…중앙청광장은 우리나라 政治史의 현장으로서 취임식장、장례식장、귀빈환영식장등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李承晩초대대통령은 이곳서 가진 취임식에서『나 李承晩은…하나님앞에 선서한다』고 선서문에 없는 異色적인 취임선서를 하기도 했고 李範奭초대총리는 이곳에서 각部處장관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朝會를 열고『시간을 지키자』『명령을 준수하자』는 口號를 先唱하기도했다。

그후 조회때마다 각종 口號가 마련돼 총리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가 이를 외쳤는데 가장 많이 입에오른 구호는「滅私奉公」과「근검절약」。또 구호중엔「말을 적게하자」는이색적인 것도 등장、당시의 사회상을 알수 있게한다。

6·25戰禍로 폐허가된 이 광장에서 거행된 서울 收復式광경도인상깊은것이었다。

의장대 사열도 군악대연주도 없이 중앙청 중앙회의실에서 거행된 이式에서 李박사는 떨리는 음성으로 北進통일을 다짐한뒤 맥아더장군에게 타이프로찍은 태극무공훈장 證書를 전달했다。

중앙청은 4·19땐 데모대의 돌팔매질대상이 되기도했고 시위군중에 둘러싸인 중앙청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장관3명은 3일동안 별관에서 숙식하며 갇혀 지내야했다。

중앙청앞 광장에서는 여섯차례에 걸쳐 대통령취임식이 거행됐다。

李대통령의 1、2、3代취임식과 朴正熙대통령의 5、6、7代취임식이 그것。

또한 이광장에서는 79년11월3일 故朴正熙대통령의 國葬이、이보다앞서 74년8월19일에는 부인 故陸英修여사의 장례식이 거행됐다。

【河長春기자】

總務處는 짐만 2천톤…大會議室없고 駐車場작아 고민

綜合청사로 大移動

○…중앙청에 들어있던 總理室、외무부、총무처、법제처、정무장관실등 행정의 中樞를 이루어온 部處들이 28일 世宗路정부종합청사로의 移徙를 끝냈다。이로써 중앙청의 국립박물관化 계획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정부史上 최대규모의 행정部處大移動의 1단계作戰이 끝난 셈이다。

○…중앙청본관 바닥면적 9천4백71평에서 2만3천평의 종합청사절반을 넘는 면적으로 옮긴 총리실등의 移徙作戰은 워낙 공간이 넓은 중앙청과 종합청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탓인지 조용한가운데 진행됐다。

그러나 官廳이사가 어느 큰회사의 이사에 비할바 아니어서 총무처의 경우 약2천톤의 이사物量을 옮겨가야 했다。

대한통운의 10톤트럭으로해서 2백대분이었고 이사하는데쓰인 비용만도 9백50여만원이들었다。커다란과자상자 7천개를 들여 각종서류와책、지갑구레한 신변도구등을 운반했고 캐비닛과 書類函6백개、책걸상1천여개를 옮겨야했다。

이사때 제일 신경을쓴곳은 국무회의실과 총리실。國政의 최고심의장의 하나인 국무회의실은 회의실에 장치해있던 탁자와 상들리에、音響기기등 1억원상당의 機資材들을 조심스레 옮겨야했다。그러나 중앙청국무회의실의 국무위원 名牌와 환등기、커튼등은 그대로 두고 회의실도 모습을 原形대로 살려 보존、박물관의 일부가되도록 할것을 추진하고있다。

○…28일 總理室이 종합청사로 옮김으로써 행정부의 현주소가 많이 바뀌었다。

총리실의 경우 行政調整室을 포함해 20층 건물의 중앙인 9층에 자리잡았다。

새총리실은 종합청사 건물방식으로는 外賓을 맞기에 투박하여 출입문등 일체를 紋樣있는 木製門으로 바꾸고 벽도 나무로 치장、아늑한 분위기를 내도록 했다。

총리실과 관계깊은 총무처는 10·12층、그아래 5、6、7、8층에 외무부、12층에 법제처、17층에 정무1장관실、18층에 정무2장관실、19층에 국무회의실과 2백명이들어갈수 있는 대회의실이 들어 앉았다。

따라서 종합청사에는 이번에 중앙청에서 이사한총리실등 部處외에 종전부터 입주해있던 내무부가 일부사무실을 조정、13、14、15층에、문교부는 15、16、17층과 18층 일부에 자리잡았고 상공부는 3、4、5층에、2층엔 청사관리사무소와 기획원산하의 海外協力委가、1층엔 합동民願室과 안내실이 배치됐다。

체육부는 蠶室의 새마을교통회관으로 이사했다。

○…종합청사로 이사한뒤 당장 어려운 문제는 駐車場사정。

한국일보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한국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6년간 정통 중화요리를 자랑스럽게 봉사 해 왔읍니다.

WE SERVE KOREANS FOR OVER 26 YEARS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석이 준비 되어 있읍니다.

SAI WOO

영업시간 :
11 : 30am.
2 : 30 a.m.

SAI WOO RESTAURANT & TAVERN
130 DUNDAS ST.W. TOR ☎ : 977—4988

ALOHA RESTAURANT

영업시간 :
11 : 30a.m.
11 : 30p.m.

ALOHA RESTAURANT & TAVERN
123A DUNDAS ST.W. TOR ☎ : 977—3438

서먹하던 분위기 단번에 "웃음바다"로

野遊會마다 치어리더

건전한 오락으로 여흥돋궈

「치어리더」가 대중화돼고있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의 치어걸과 레크리에이션지도원을 합친 형태의 이「치어리더」는 큼직한 야유회나 직장 체육대회 같은데나 솜씨를발휘, 하고 있는것. 「치어리더」를 만나본 사람들은『여럿이 모일때놀고 즐길줄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꽤나 도움이되는 직종』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보이고 있고 치어리더들은『가족단위의레크리에이션이不在. 리더를따라 건전하게 여가를보내는 풍토가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한다. 놀고 즐기는 방법을 잘 모르는 이사회에서 치어리더들은 색다른 도전을 하고있는 셈이다.

휴일이었던 지난22일 경기 淸平유원지. 가족까지 동반한 모제약회사 야유회엔 80여명이참석, 치어리더 李貞宰씨(42)의 사회로 여흥을 즐기고 있었다.

李씨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20여가지. 「모두 모여 노래를」, 「꽃동네 새동네」등 가족단위에 알맞은 노래에 따라 손동작을 이어가고 있었다.

5분여동안에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어느정도 사라지자 곧이어「여왕선발」프로가 뒤따랐다.

알루미늄통이로 모자를 접어 머리에쓴 다음 참석자들의평가를 받는것이다. 반듯하지못한 모자를 접은 사람에게는『꼭 시녀같이 만들었네』, 베레모스타일의 모자를 만든 사람에게는『라면봉이는점장이군』하면서 좌중을 웃겼다. 박수소리가 큰사람에겐 상품이 돌아가는데 상품은 휴지1박스라고 말하자 계속 웃음바다다.

싱어롱(다함께 노래를)시간·꼬리잡기등 계속되는 프로그램이 2시간가량 진행됐다.

◇각종모임이나 야유회에서 사회나 여흥을 이끌어주고있는 치어리더의 수가증가, 건전하게 놀고 즐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사단법인한국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金수仲) 산하에 치어리더가 20명이나되며 이밖에도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젊은 리더들이 50~60명. 이가운데 여자만 10여명정도.

지난70년대초YMCA등에서 배출한 레크리에이션지도자가 80년대들어와 개인단위로 분업화, 치어리더로서의 직역이 자리잡혀 가고있는것.

이들 치어리더가 가지고 있는 놀이는 상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번에 보통10여종류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의 첫순서는 우선 지도자에게 마음을여는 아이스·브레이크(마음의문을 여는상태) 시간. 당연한것같으나 우스운소리를던지며 정신집중이 요구되는 동작을 지도한다.

이단계가 끝나면 기구등을 이용하는데 게임소재가 꼭 돈을 들여 준비해야하는 풍선이나 공등을 탈피, 모임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얻을수 있는 신발·돌이나 과일등을 대상으로 변화를 주기도 한다.

姜鳳和씨(31)는『주로 1명이 30~40명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는것. 그러나 1백명선을 넘어서도 별 어려움은없다. 어려운것은 15~20명의 모임을 진행시키는것으로, 서로의 시선을 의식하여 쉽게 감정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職場 체육회서도 人氣

하루出場 15만원… 女性등 70여명 활동

이들 치어리더들이 받는 보수는 야유회나 체육대회등의 1일 풀코스참석이 10~15만원선, 1~2시간짜리 진행은 5만원선이다.

또 출장대신 행사주최측에서 사람을 보내 진행방법의 자문을 구할 경우 간단한 게임을 지도해주기도 한다.

이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모임은 서로가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점잖은 층」의 모임. 즐기기위해 왔으면서도 어울려 놀지않고 치어리더에게 코미디언처럼 쇼맨십의 발휘를 요구하거나 무용수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또 가장 흥응도가 높은 경우는 역시 학생층인데 쉽게 적응되고 동작을 익히는 정도가 빠르다.

이들 치어리더들은 노래에서부터 악기, 춤, 개그에 이르기까지「팔방미인」이지만 그러나 나름대로의 독특한 분야를 갖고있다.

「지역사회레크리에이션」대표인 李庚宰씨는 게임,「한국레크리에이션센터」의전영수씨는 장기자랑, 한국레크리에이션협회姜世和씨나 산업레크리에이션의朴창영씨등은 싱어롱을 장기로하고있다.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우리나라가 가족단위 레크리에이션이 없어 이의개발이 시급하고 리더를좇아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할줄 아는 풍토가 아쉽다』고말했다.【朴榮基기자】

한약방 一家 3명피살

橫城 밭에서 피묻은몽둥이·2명足跡 찾아

【橫城】28일 상오6시20분께 강원 橫城郡公根面杏亭里 행정한약방에서 주인 남궁섭씨(70)와 부인 장은순씨(59) 남궁씨의동생 남궁억씨(48)등 3명이 흉기에찔려 숨져있는것을 같은 마을 전근훈씨(42)가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마을 밭작인 전씨에 따르면 이날새벽 가옥세를받기위해 남궁씨집에 가보니 한약방주인 남궁섭씨는 피투성이가된채 마당에 엎드려 있었고 부인 장씨와 농생 억씨는 안방에서 역시 피투성이가된채 숨져 있었다는것.

행정한약방은 약을 잘짓는다는 소문이나 서울등 다른지역에서도 많은 손님이 찾아왔었다.

수사에 나선 횡성경찰서는 남궁씨집에서 30m가량 떨어진 담배밭에서 지름6cm, 길이60cm의 피묻은 아카시아나무 몽둥이 1개와 어른의 족적2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2명이상의 범인이 남궁씨부부를 몽둥이와 칼등으로 살해한후 달아나다가 피묻은 몽둥이등을밭에 버린 것이 아닌가 보고 이날 하오 치안본부 감식반이 내려오는대로 지문을 감정의뢰키로 했다.

경찰은 또 사건이 일어난 안방에 예금통장이 7~8개나 흩어져있고 장롱안에 금반지 10개(15돈쭝·싯가 75만원)가 그대로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강도로 위장하거나 현금만을훔쳐간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피해액품등을 조사중이다.【龍】

돼지고기 高血壓과 無關

漢方界 임상연구 쇠고기보다 食用·藥用효과

돼지고기가 중풍·고혈압등을 일으키는등 인체에해롭다는 종래의 속설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쇠고기보다 식용·약용으로 효능이 더큰것으로 밝혀졌다.

28일 慶熙의료원 具本泓한방병원장등 국내 한의학자들이 보사부의 의뢰를받아 연구한 「돼지고기에대한 한의학적 분석자료」에 의하면 돼지고기가 고혈압이나 중풍을 유발한다는 임상근거는 없는것으로 확인됐다는것.

또 소화기능이 약하거나 열증을 유발할 우려가있는 경우 이외에는 한방치료에서도 돼지고기를 기피하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특히 慶熙한방병원에 입원한 중풍환자 1백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중 57%인 63명이 평소 쇠고기를 좋아했으며 돼지고기를 즐겨먹은 사람은 12%인 13명에 불과해 성인병의 원인이 돼지고기가 주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있다는 것이다.

또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의 함량에서도 쇠고기는 1백g에 94mg인데 반해 돼지고기는 89mg으로 달걀(5백4mg) 새우(1백30mg)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H245-3539

카터訪韓반대 시위 文東煥씨 구류20일

서울형사지법 제4단독 鄭則秀판사는 28일 文東煥피고인(62·목사·서울 道峰區 放鶴洞 36의1)에대한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구류20일을 선고했다.

文목사는 지난 79년6월23일 낮12시 5분께 서울鍾路區 鍾路2街 화신백화점 앞길에서 「민주주의 없이 안보없다」고쓴 플래카드를 들고 카터전미국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혐의로 즉결에 넘겨져 구류29일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文목사는 그후 金大中사건과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 지난81년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뒤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동안 소재파악이안돼 재판이 미루어져 오다가 이날 궐석재판으로 구류가선고됐다.

피해자가 잡은強盜 파출소에서 달아나

피해자가잡은 강도가 파출소에서 감시소홀로 달아난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6일 상오4시에서 5시사이 서울永登浦경찰서 新吉4洞파출소에서 23세가량의 강도 피의자가 근무경찰관이 조는 틈을이용, 수갑을 풀고 그대로 달아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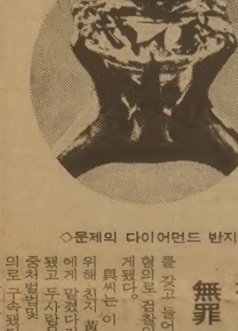
달아난 강도는 지난25일 하오11시께 서울永登浦區新吉4洞240의131申大圭씨(44·상업)집대문앞에서 집주인 申씨를 벽돌로 얼굴을때린뒤 현금30만원 토큰60개등 모두37만여원이든 가방을 강취해달아나려다 申씨와 격투끝에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됐었다.

파출소에 연행된 강도피의자는 긴 목재의자에 한쪽 손과함께 수갑이 채여졌었는데 소내근무자인 경찰관1명과 방범대원1명이 조는사이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

경찰은 범인이 갖고있던 주민등록증의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이 주민등록증은 安相勇씨(24·서울城東區下往十里洞1000의76)가 잃어버린것으로 범인이 사진을 갈아붙인것으로 밝혀졌다.

主人에 되돌아 온 7.7캐럿 다이어

대법원은 27일 『국가는 7·76캐럿짜리 다이어먼드(싯가1억5천만원)를 주인에게 되돌려주라』고 확정판결했다. 이 보석의 주인은 재일



◇문제의 다이어먼드 반지。

在日동포 78년 密輸혐의로 "포기"覺書

無罪 확정후 반환소송…國家상대 勝訴

동포실업인 具宅書씨(56·서울道峰區獼阿洞133)로 具씨는 지난78년12월8일 부인 金福順씨(52)와 함께 귀국하면서 이 반지를 갖고 들어왔다가 밀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됐다.

具씨는 이 보석을 팔기위해 친지 黃모씨(37·여)에게 맡겼다가 검찰에 적발됐고 두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및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싯가 7천만원짜리 다이어를 밀수, 관세 1천2백8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具씨는 재판과정에서『문제의 다이어는 63년부터 합작회사설립을 위해 국내에 자주 드나들다 한국의 고위간부로부터 받은것이며 그렇게 비싼것인줄도 몰랐고 계속 소지하고 다녔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지법은 79년12월 선고공판에서 보석의 보관상태와 반지테의 함금상태로 보아 「밀수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具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고법에 항고했고 항고심도 꼭같은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具씨의 무죄가 확정됐던것.

그러나 국가를대리한 검찰은 『형사판결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환부선고가 따르지 않았고 具씨가 일단 소유권을 포기했던 물건이므로 당연히 국가의 소유』라며 보석을 되돌려주지 않자 具씨가 『한때 포기각서를 쓴것은 사실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주장하며 압수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전 첫라운드는 具씨 패소였다. 서울민사지법은 81년12월 검찰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具씨는 이에 굴하지않고 3심까지 항소, 2년2개월동안의 끈질긴 법정투쟁끝에 이번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校內시위 선동혐의 中央大生 2명令狀

서울鷺梁津경찰서는 28일 中央大生 尹敏鐸군(21·일어일문과2년휴학)·朴守一군(22·회화과4년)등 2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새 流行語만든 탤런트 朴圭彩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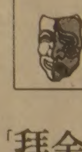
"미인 이야요"

"財閥프로 붐…「拜金」자극할까 걱정"

『나돈 없시요…당신미인 이야요』MBC TV의 기업드라마「야망의 25시」가 보름 새 유행어를 만들었다.

「한번 와보시라니깐요」라는 李朱一의 히트이래 새롭게등장한 타자는 탤런트 朴圭彩씨(46·사진). 미남도 아니고 액션스타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부러지게 성격배우랄수도 없는 朴씨는 25신에서 스타덤에 오른것 같다.

朴씨의 역은 서울 永東에서 부동산투기로 재벌이된 사채업자 C씨가 모델이라는 이 사채업자역에서 그는 걸직한 평안도사투리를 종횡무진 구사하며 해학과 코믹한 분위기를 한껏 살려낸다. 모델보다도 더 리얼하게 개성을 살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도는 참이다.



20여년 탤런트경력에 老役이나 맡아했던 朴씨는 실존인물을 극화하는데서 두각을 나타낸다. 제1공화국에서는 晩松 李起鵬역을 「실제」보다 더 잘해냈다는 평을 들었고「민나 도로보 데스」(모두가 도둑이다)라는 말을퍼뜨린 거부실록의 金甲淳역에서도 好演이었다.

사생활에서도 그는 TV속의인물 못지않게 바쁘다.

라이온스클럽회원인데다 10년전부터 서울노인학교를 운영해오고있고 仁川앞바다 永宗島에는 백운산 약수암이라는 절도 세워놓고 있으며 후배 탤런트의 결혼식에 주례도 자주선다.

TV 연기자협회 회장도 지내는등 늘상 바빠「마당발」이라는 닉네임이 붙어있다. 그러나 朴씨의 재벌론은 따끔했다. 『신문에서도 재벌시리즈, TV에서도 재벌연속극, 재벌에 관한 책이 쏟아지는 경향은 생각좀 해봐야 합니다. 너무 재벌을 미화하는 세태는 젊은이의 배금주의사상을 자극하는 것이 될수도 있는 거지요』

그자신의 야망은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란다. 그 꿈때문에 高大農大에 들어갔었는데 「옆길로 샜다」고 피식 웃는다.

『돈 많이 벌었습네까?』

『나 돈 없시요. 1천5백만원 은행돈 빌어 25평짜리 집산것이 전부야요』【金宗來기자】

檢察 항소제기 趙世衡판결 불복

서울지검 李根宇검사는 28일 大盜 趙世衡피고인(37)에 대한 1심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에서 趙피고인에게 무기징역에 보호감호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趙피고인이 사람을해치지않은점등의 정상을 참작,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했었다.

술마시다 시비 동료船員 살해

【釜山】28일 새벽2시께 釜山市 中區 南浦洞1街38 남포여인숙 2층방에서 친구들과함께 술을마시던 오징어잡이 어선 제7범양호 선원 최수옥씨(42·西區甘川洞31)가 동료선원 신호도씨(43·影島區南港洞)가 휘두른 각목에 머리를 맞아 인근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龍】

雪嶽山반달곰 쓸개 3일 昌慶苑서公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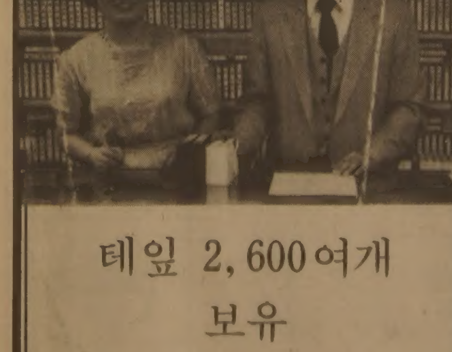
총상을 입고 죽은 雪嶽山 반달곰의 쓸개(웅담)가 오는6월3일 昌慶苑에서 공매처분된다.

문화재 관리국은 28일천연기념물 329호인 이반달곰의 웅담과 고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해여부를 감정의뢰한결과 부패하지 않았다는 통보에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린것인데 고기는 현지에서 별도로 공매하도록 束草시에 통보했다.

新築건물 지붕붕괴 人夫등 둘壓死

【盈德】27일하오8시40분께 경북盈德郡江口面烏浦2洞 평강주유소 신축공사장에서 기둥이 넘어지면서 천장슬라브가 내려앉아 인부 차중국(44·盈德邑德谷洞122) 손용석씨(41·盈德邑南石2洞196)등 2명이 깔려 숨지고 시공업자 김종각씨(30·盈德邑南石1洞242)가 중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주유소천장 슬라브공사를 하던중 벽돌로 쌓아올린 기둥이 슬라브무게를 견디지못해 일어났다.【龍】



테잎 2,600여개 보유

새로운 연속극 입하!

ㅁ새댁 ㅁ다녀왔읍니다 ㅁ청춘행진곡
ㅁ안개 ㅁ엄마는 바빠요 ㅁ추동궁마마

한국비데오센터

678 BLOOR ST. W.
☎: 532-0210
손병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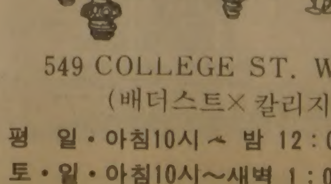
Oriental Recreation Centre

금번 저희는 한국식 당구대(6대 보유), 외국식 당구대및 비데오머신을 보유하고 COLLEGE(죠지·브라운 학교옆)에 개업했읍니다.

일차 왕림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 용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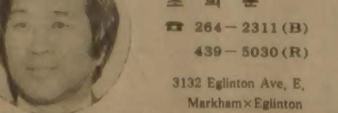
ㅁ한국인의 당구대회예약환영
ㅁ특별봉사



549 COLLEGE ST. W.
(배더스트× 칼리지)
평 일·아침10시~밤 12:00
토·일·아침10시~새벽 1:00
924-5597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의 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O.T.T.A BUTTERFLY

국제탁구대회
MASSEY HALL

*한국, 중국, 미국, 서독, 그리고 캐나다 선수출전.

●6월15일(수) 오후6시30분 $5.00
●6월16일(목) 오후6시30분 $5.00
●6월17일(금) 오후7시 $7.00

판매처 한국일보사(☎533-2361

내고향메뉴

우동	$2.95	오멩백반	$3.50
짜장면	2.95	칼국수	3.25
냉면	2.95	생선초밥	3.95
통만두	2.95	불고기백반	4.95
곰탕	2.95	갈비백반	4.95
김초밥	2.95	떡만두국	3.25
비빔밥	2.95	생선찌게백반	3.95
빈대떡	2.50	두부찌게백반	3.50
		순두부찌게백반	3.50
		된장찌게백반	3.50
		곱창전골 2인분	9.00

CHARGEX VISA

ㅁ거리에 따라 주문배달합니다.
ㅁVISA 카드로도 지불됩니다.

내고향통닭집

658 1/2 BLOOR ST. W.
537-0432

지겨운 79분

日海溢, 한국여자배구도 덮쳤다

韓·日배구 베스트 빠졌는데 맥못춰 3-1

83년 韓·日배구정기전이 28일 장충체육관서 개막, 한국남자배구대표팀은 日本을 간단히 3-0으로 제압했으며 여자는 日本에 한세트만따내고 분패했다.

81년 日本서 첫번째, 82년 한국서 두번째 정기전이 열린이후 한국남자는 통산3승3패를 기록했으며 여자는 1승6패의 부진을 보였다.

이번대회는 29일 2차전을 끝으로 폐막된다.

경기시간 79분, 스코어 1-3때. 국제경기로는 너무 짧게 끝났지만 한국 대표팀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에게는 너무나 길게느껴졌다. 4천5백여 관중들의 야유도 참기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야유를 대표팀에게만 돌려야만 하는가. 한국여자대표팀은 일본보다 한달늦게 지난5일 강화훈련에 돌입했으나 23일의 짧은 연습기간중 대표선수 전체가 모여 손발을 맞춘적이 없었다.

일본 평화컵 대회 출전, 부상등으로 몇몇 선수들이 강훈에 불참, 대표팀은 8명으로 훈련을 해야했다.

배구협회 강화위원회의 갈팡질팡이 빚어낸 결과였다. 일본은 지난 日·蘇정기전때의 베스트멤버중 3명이 코트에 나서지않았다.

두번씩 세계선수권 대회와 월드컵에 출전했던 노련한 에가미(1m75)·스기야마(1m80)·愛知淑德高3년생 유망주 히로(1m83) 대신 모리다(1m71)·다께우찌(1m71)가또(1m70)등 단신들이 코트에 들어섰다.

그러나 1m76의 세터 나까다는 강한 손목 스냅을 이용한 빠른 평행 토스를 구사했으며 일본 공격수들은 A, B퀵, 오픈 강타로 우세를 보였다. 한국 공격수들의 타구지점을 읽으며 볼을 주어 올리는 호수비와 진동이 심한 서브는 한국보다 한수 위였다.

한국은 郭宣沃 李云任 李明姬 韓敬愛 朴美姬등 미도파주전 5명에다 釜山德明女商2년생 尹貞惠를 베스트로 내세웠다가 제2세트부터 尹貞惠를 李榮宣으로 바꿨다. 한국이 잠시나마 반짝했던때는 제3세트중반. 5-7, 8-10으로 뒤지다 李榮宣 李明姬의 공격과 李云任의 블로킹으로 15-10으로 뒤집었었다.

종래 왼쪽에서 오픈공격으로만 승부를 가렸던 李榮宣은 중앙 속공도 소화할수있는 기량 향상을 보였다. 실업 1년생 朴美姬의 날렵한 시간차 공격이 가끔 위력을 보였다.

오는11월 일본에서 벌어지는 LA올림픽 아시아선수권대회 까지 앞으로 6개월.

대표선수들이 모두 합류한 지금부터 한국 특유의 트릭·플레이와 안정된 서브·리시브, 수비력을 어떻게 짜맞추느냐는것이 관건이다.

◇첫날전적 (28일·장충체)

▲여자

일본	3	15	10	15	15
한국	1	2	15	2	9

남자팀은 完勝

姜斗泰등 주전3명 빠지고 3-0

한국남자는 지난 日本평화컵대회에 출전, 오른쪽어깨부상이 악화된姜斗泰, 중앙속공수 柳重卓, 최장신李鍾敬등 주전3명이 결장했으나 시종우세한 공격력과 컴비·블로킹으로 리드를 지켜 완승했다.

日本은 노장 다나까의노련한 공격과 오꾸노(187cm)의 백어택이 돋보였다.

▲남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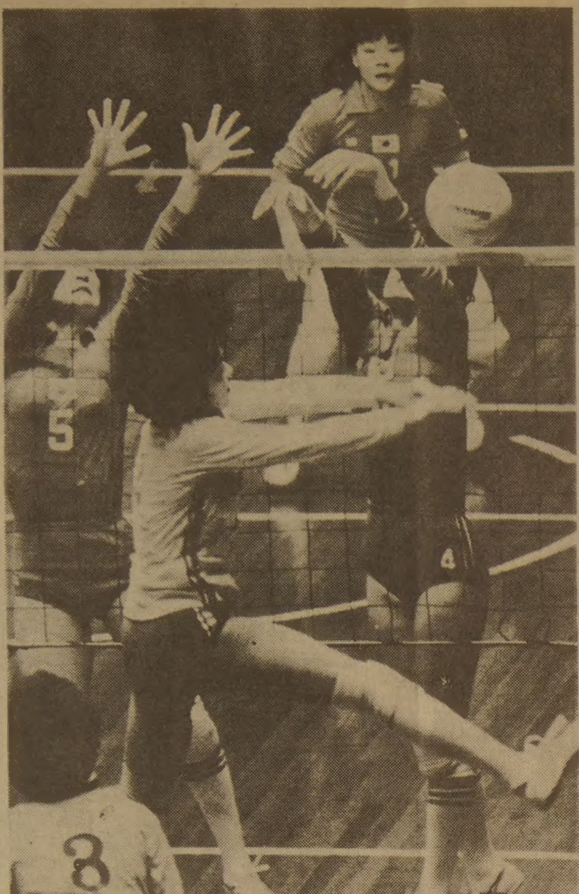
한국	3	15	15	15
일본	0	10	7	12

韓·美戰일정확정 배구협회

배구협회는 오는11월의 LA올림픽 아시아지역 예선전에 대비, 세계랭킹3위 美國여자팀과 우리나라 대표팀간의 4차전경기일정을 확정했다.

◇경기일정

▲1차전=6월12일(부산) ▲2차전=13일(대구) ▲3차전=14일(광주) ▲4차전=16일(서울)



◇아차 또 헛손질 韓·日정기전 1차전서 日本모리다(森田)의속공을 한국의 李明姬(⑥·4번)가 블로킹하고있다.

金剛장사에 金三植

장사씨름 신예宋美鉉과 재대결激戰

【大邱=洪淳杓기자】제2회전국장사씨름대회겸 신인선발대회는 28일 靑龍군金剛장사급과 白虎군 太白및 漢拏장사급 순위결정전을 벌였다.

이날 靑龍군 金剛장사급(85kg이하)에서 金三植(20·경상대)이 장사타이틀을 따내 3백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제1회 천하장사대회 4品이었던 金은 이날 白虎군에서 올라온 宋美鉉(동아대)과 4승1패로 공동선두가되어 재대결을 벌인끝에 잡치기로 승리했다.

大邱실내체육관서 벌어진 白虎군 太白장사급(75kg이하) 경기서 신인선발대회1위를 차지해 白虎군에 진출한 林采雄(19·부산공동어시장)이 기성 강호들을 잇달아 물리쳐 새로운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다. 林采雄은 첫경기서 白虎군 太白장사인 강호金潤甲(경상대)을 배지기와 다리기술로 2판을 내리따냈으며 2번째경기서 金道顯(동아대)에 2-1로 역전승, 2승을 올리고 선두에 나섰다.

한편 대회첫날 靑龍군太白장사급 리그전에서 20세의 李熙潤(경남대)이 靑龍에서 맨처음 장사타이틀을 획득했다.

◇제2일전적

◆신인선발전

▲太白장사급=①林采雄(부산 공동어시장·白虎군진출) ②洪淳陽(동아대) ③安相哲(영남대)

▲金剛장사급=①金旭培(영남대) ②徐光洙(동아대·이상 白虎군진출) ③朴鍾培(경상대) ④南載鉉(경상대)

▲漢拏장사급=①李大雨(동아대) ②李孝基(동아대) ③李滄(경북·이상白虎군진출) ④李在福(현대중공업) ⑤林湧堤(상주공고)

▲白頭장사급=①羅采賢(경남대) ②金相根(영남대코치·이상 白虎군진출) ③李重九(현대중공업) ④金鍾和(유도대)

◇靑龍군金剛장사급

▲장사 金三植(경상대) 4승1패 ▲1品 宋美鉉(동아대) 4승1패(동률재대결) ▲2品 孫相柱(영남대) 3승2패 ▲3品 金慶洙(현대 중공업) 2승3패 ▲4品 車敬萬(진주상코치) 1승4패 ▲5品 崔昌玉(부산공동어시장) 1승4패(재대결)

海外스포츠話題

양키즈 마틴監督 이번엔 팬暴行 구설수

"우리틈에 끼어들어 끌어 냈을뿐" 해명

맥주 권하자 뺨때려

美프로야구뉴욕·양키즈팀의말썽꾼빌리·마틴감독이 또다시 구설수에 말려들었다. 그자신은거짓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마틴을 좋아하는 한 야구팬이 마틴에게 맥주한잔을 권하려다가 뺨을 맞고 양키즈의 캐처 돔·스칼라에게도 폭행을 당했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마틴과 스칼라의 설명은 전혀 달라 경찰은 사건진상조사에 나섰다.

사건발생은 빌리·마틴이 이끄는 뉴욕·양키즈가 캘리포니아·앤젤스에게 7-6으로 분패한지 2시간후인 25일 새벽.

마틴의 폭력을 고발한 27살의 팬 로빈·울슨이 AP통신에 풀어놓은 사건내용은 이렇다.

울슨은 애너헤임·하이야트·호텔바서 옆자리의 빌리·마틴을발견하고 그쪽으로 갔다. 맥주 한잔을 사기위해서 였다. 마틴은 라이트·비어의광고에 출연중이었다.

마틴은 울슨이 맥주를 권하자 욕을하며 모욕적인 말투로 당장 꺼지라고 쏘아붙였다. 울슨도 화가나 왜 모욕하느냐고 항의했다.

『나는 다시 마틴에게 가서 미안하다고했지요. 그순간 그가 돌아서더니 내목덜미를 쥐고 뺨을갈겼어요. 동시에 스칼라가 달려들어 내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열다섯번이나 마루에 찧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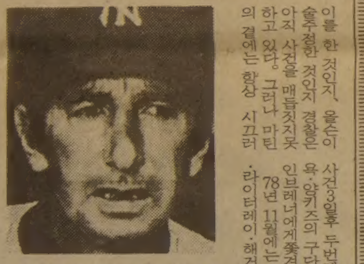
마틴은 펄쩍 뛰었다.

『나는 그를 건드린적도 없다. 그녀석이, 너댓번 우리틈에 끼어들어 스칼라가 멱살을 잡아끌어냈을 뿐이다』

마틴이 경기에진 화풀이를 한 것인지, 울슨이 술주정한 것인지 경찰은 아직 사건을 매듭짓지못하고 있다. 그러나 마틴의 곁에는 항상 시끄러운일이 붙어다니고 있다.

지난 79년 오프·시즌중 마틴은 한호텔에서한 채소장수와 싸웠으며 이 사건3일후 두번째로 뉴욕·양키즈의 구단주·스타인브레너에게쫓겨났다. 78년 11월에는 스포츠·라이터레이·해거와 싸웠다.

마틴은 지난겨울 스타인브레너와 화해, 3번째로 뉴욕·양키즈를 맡고 있다. 【外紙】



◇화제가 끊이지않는 美프로야구의 말썽군 빌리·마틴 양키즈감독.

金鎭雨 연타석 홈런

프로야구 三美, 롯데제압 先頭질주

OB·三星, 해태·MBC 이겨

4번타자 金鎭雨(25)의 2·4회초 연타석솔로홈런을 발판으로 三美 슈퍼스타즈가 롯데추격을 6-2로 뿌리치고 3연승을 올려 프로야구 전기시즌단독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28일 仁川홈구장에서 三美 4번 金鎭雨는 2회말선두타자로 나와 188cm, 88kg의 파워를실어 崔東原을 통타, 좌월선제솔로 호머를 날렸으며 2-2로타이를이룬 4회말 또다시선두타자로 崔東原과대결, 두번째좌월솔로 호머를 날려 三美의 승기를 굳혔다.

金鎭雨는 이날 시즌6·7호 홈런을날려 홈런더비 1위 金奉淵(해태·12개) 2위 李萬洙(삼성·9개) 3위 金用熙·金容哲(롯데·8개)에 이어 5위로 뛰어올랐다.

롯데 에이스 崔東原은任昊均보다 적은 5개의 안타를 허용했으나 三美에장타, 적시타를 맞고 내야범실까지 겹쳐 석패, 시즌통산 2승4패를 기록했다.

해태 타이거즈는 大田원정경기서 3회초 8번金戊宗, 1번金一權의 2루타로 선제점을 올렸으나 6회말 선발 李相潤의 난조로 OB에 연속 3안타로 2점을 허용, 1-2로 역전패 당했다. 해태는 이날 패배로 16승1무13패를 기록, 선두 三美에 2·5게임차로 멀어졌다.

三星은 金始眞의 완투로 MBC에 3-2로 승리, MBC를 꼴찌로밀어냈다.

◇중간순위(28일현재)

	팀	승	무	패
①	삼미	20	0	12
②	해태	16	1	13
③	OB	17	0	16
④	롯데	15	0	17
⑤	삼성	13	1	17
⑥	MBC	14	0	20

◇28일전적

◆인천

롯데	002	000	100	3
삼미	011	100	12×	6

▲홈런=金鎭雨(2·4회) 鄭求善(7회·이상 삼미)

◆대전

해태	001	000	000	1
OB	000	002	00×	2

◆대구

MBC	000	000	002	2
삼성	000	002	10×	3

해글러 KO로7防

프로복싱 미들급스카이피온 맞아

【프로비던스(로드아일랜드)AP聯合=特約】프로복싱세계미들급 통합챔피언 마빈·해글러(29·미국)는28일하오(한국시간) 이곳서 벌어진 타이틀 방어전서 도전자 윌포드·스카이피온을 4회KO로 물리쳐 57승(48KO) 2무 2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해글러는 이대전서 1백50만달러의 대전료를 받았다.

해글러는 76년 3월부터 현재까지 무패전적을 고수하고 있으며, 스카이피언과의 방어전은 80년엘런민터를 물리치고 왕좌에오른이래 7차 방어전이된다.

具玉姬 2位기록

日 여자오픈골프

【東京=聯合】具玉姬는 27일 日本 가스가이(春日井)에서 개막된 총상금 2천5백만엔의 여자오픈 골프대회 1회전에서 2언더파70(37, 33)을 기록, 2위를 마크했다.

10개국에서 99명의 골퍼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日本의 요시가와·나요꼬(34)는 3언더파69로 선두에 나섰다.

이번대회의 우승자에게는 4백만엔의 상금이 주어진다.

스포츠短信

手記발간…레코드도 취입 계획

◆프로복싱 챔피언金泰式

◆…프로복싱WBC플라이급前세계챔피언金泰式(사진)이 25년간 자신이 걸어온 고난과 영광의 길을 「빛을 내리소서」(正友출판사)란 책으로 펴냈다.

지난해 9월4일 大邱에서 WBC동급9위 라미레스(멕시코)와의 랭킹전서 머리를다쳐 수술까지 받았던 金泰式은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정상까지 올랐던 과거의 경험을 이 책에 쓰고있다. 그는 권투를 지망하는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힘과 의지를 심어주기위해 책을 펴냈다고 밝혔다. 金은 앞으로 레코드도 낼 계획이다.

張吉山 <1753>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13)

『고서방(高達根)은 포천서 그대로 양주로 향하여 불곡산고개에서 기다리다가 대전리서 가는 우리들과 합류하면 되오. 양주 관아로 가자마자 제일 먼저 동헌으로 몰려 들어가 목사를 사로잡고 중군을 잡은 뒤에 영의 수직 군사들을 처치하고 번이건 비번이건 군졸과 군관을 잡아 옥에다 넣어야 할것이오. 목사는 우리가 말을 것이고, 중군과 군관들은 방서방과 이서방이 하오. 우물쭈물 하지말고 조금이라도 반항할 눈치가 보이면 가차없이 목을 베시오. 또한 향임들을 다루고 토박이들을 잘 아는 이가 필요할 것이니 전형방과 허예방이즉시 목사의 관인을 사용하여 비관을 돌려서 영평 포천 적성의 현감들을 소집시켰다가 잡아두고, 각 고을 아전들께통자하여 그들을 얼른 우리 일에 동사하도록 해야합니다』

이철신이 말하였다.

『두 사람을 만나려거든 삼문 밖으로 잠깐 불러내어 이르시구려. 아니면 이따가 아이를 보내어 저녁에 놀러 오라구 하든지』

『아니 그럴 틈이 없으니 내 직접 가서 만나야겠군』

이시흥 방귀선 그리고 황회 정원태는 함께 이철신네 집에서 나왔고, 고달근이도 말없이 나서기는 하였으나 떱떠름한 얼굴이었다. 황회가 신신당부 하기를,

『아이들 몰고 불곡산 고개로 나와야한다. 우리가 이제서야 큰일을 치르게 되는게야』

하였으나 고달근이는 앞서가는 원태와 시흥의 등을 힐끗 바라보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였다.

『이봐, 검계는 인제 다 지나간 얘기야. 자네들 몇이서 쑥덕거린다고 한양을 뒤집어? 갑자년에는 정말 난다긴다하는 사람들이 가제와 게처럼 혈당을 지어 혀가 빠지도록 뛰었어도 공연히 잡혀 죽기만 했어. 이봐 황서방, 너는 빠지라구』

『이렇게 준비가 착실하니 절대 실패하지 않을거야. 달근이 자네두 인제 속 좀 차려. 손해 볼것이 없지않나. 첨부터 뭐 내노랄게 있었던가. 안성 청룡사에서 절밥 얻어먹고 잔뼈 굵고 사당 애들 행하로 목구멍에 풀칠 하였으니, 그만하면 호강하구 살았지. 두고보게. 우리가 이대루 찍 소리두 못하구 밥숟갈 놓게 되지는 않을게야』

황회가 열을 내어 말하였고 고달근이는 전처럼 발끈하거나 욕지거리를 께내지도 않았다. 그것은 황회에게는 남다른 정이 있어서였다. 그는 어느 점장이가 표현하였듯이 실리에 밝을지언정 정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진작 그런 것이 있었다면 달근이는 벌써 청룡사 사당거사패에서 발을 뽑지 못하고 지금은 저승패가 되어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고달근은 면천(沔川)서 그와 함께 화적질을 하여 쫓긴 이래로 형제와 같이 붙어다녔었다. 황회가 노적사에서 정원태를 만난 이래로 그는 차츰 변모하기 시작하였고, 달근이는 자기 앞가림에 급급하였던 것이다. 고달근은 지금이라도 대충 정리하여 어느 시골에 전장이라도 마련하고 숨어 살면 밥 세끼는 놓치지 않을만 하였다.

땅끝에서 오다

구독신청은 533·2361

시간과 시간사이 ①

金成一 作 宋龍 畵 <69>

준호가 회사에 출근한것은 정오가 훨씬지나서였다. 그는 우선 사무실에 들어서자 마자 동경전화를 신청했다. 여권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직원이 다가왔다.

『리비아 비자는 내일 저녁에나 나올것 같습니다. 만약 사무실에서 뵙지못하면 제가 내일 여덟시 반까지 공항으로 나가겠습니다. 비행기 시간은 아홉시 이십분이니까 그때까지면 될것 같습니다. 여권과 항공권, 그리고 트리폴리 출장비를 그때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출장비는 그쪽에서 며칠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프로젝트 본부장과 동경지사장간에 합의된대로 우선 1주일분으로 계산했읍니다. 혹시 연장되는 경우가 생기면 트리폴리 지사에서 우선 가불을 하십시오. 트리폴리 지사에도 미리 연락해 두었읍니다. 트리폴리총무의 미스터 백은 제 입사동기생입니다』

빈틈 없는 그를 바라보며 준호는 리진그룹의 인재가 또 하나 늘었구나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아직 이름을 외지 못하는데…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아, 이거 정말 실례했읍니다』

그는 웃포키트에서 잽싸게 명함을 뽑아 건네었다.

『이젠 리진그룹도 워낙 커져서 한회사 직원 끼리도 명함을 주고 받아야 기억이 되더군요』

윤종혁(尹鍾赫)이라고 거기 쓰여져 있었다. 규격화된 명함에 지금은 비록 이름 석자 뿐이지만 앞으로 그도 자기 이름 앞에 좋은 직함 몇자를 찍어넣기 위하여 피나는 싸움을 벌어야 할 것이었다. 준호는 그의 명함을 잘 넣어두었다. 공항까지야 틀림없이 나오겠지만 해외에서도 본사 직원들에게 부탁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아, 임대리님』

그는 또 한가지를 추가하였다.

『옐로·카드(예방접종증명)는 가지고 계시죠?』

『네, 가지고있읍니다만』

『파리에서는 필요없읍니다만 트리폴리에서는 이따금씩 콜레라예방접종을 확인할 때가 있읍니다』

『아……』

바쁜 하루중에 해야 할 일이 또 한가지 늘은 셈이었다. 동경전화를 신청하신분이 누구냐고 수화기를 든 여직원이 외치고 있었다. 그는 뛰어가서 전화를 받았다. 마침 우에다·구미꼬가 전화를 받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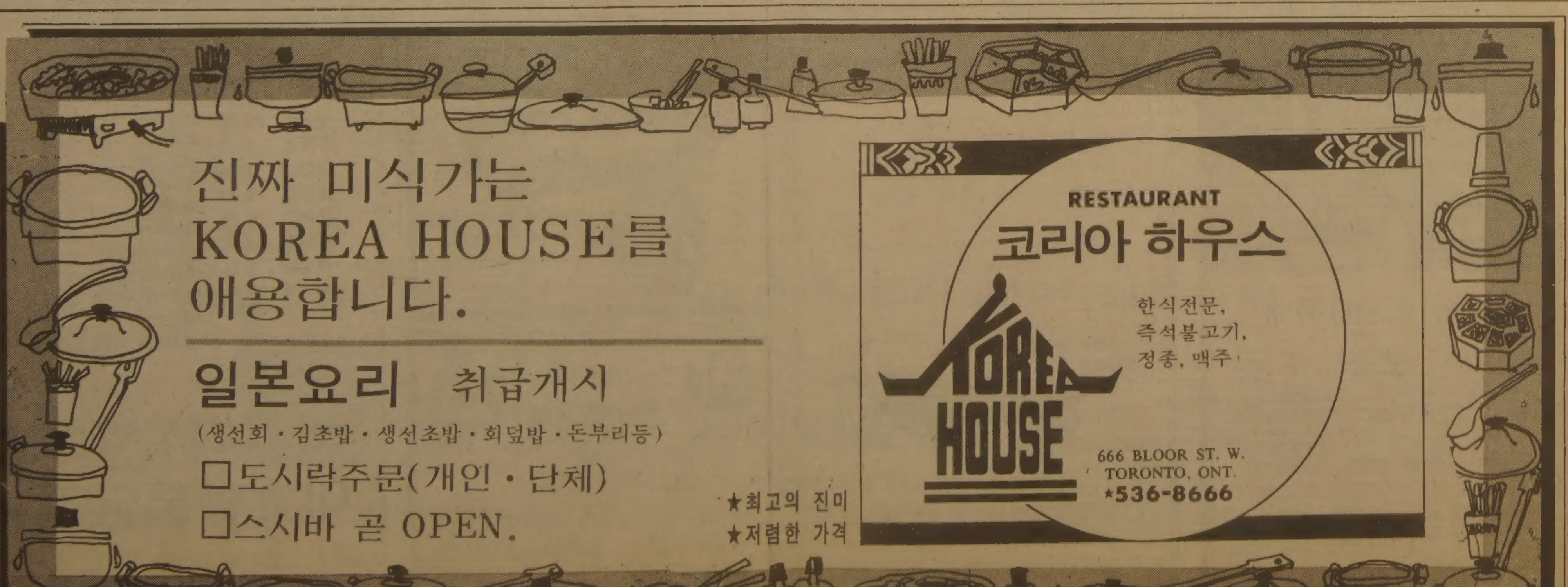
『우에다상, 나 임준호입니다』

『아, 하야시상. 공무가 아닌 일로 전화드려서 미안해요. 하야시상에게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인데?』

『스미에가 실종이 되었어요』

『뭐라구?』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톨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상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체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목수일·드라이 월·페인팅 등등 해드립니다.
18년 경험, 무료견적.
전화 : 653-7446

집수리, 건물구조변경, 지하실수리 전문. 일반목수일 합니다. 각종기계시설및 진열장, 카운터제작, 페인팅. 타일, 신건축, 세멘트일등 전화:669-5784 Mr.심

식 당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Korean Garden(정원)
고향의 맛, 한국식을 전문으로 함.
7197 Stanley Ave, Niagara Falls, 전화:1-354-3800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 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피 짜(RESTAURANT & TAVERN)
▲피 짜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오 ! 인천 식당(O'Incn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체 취급. ※ 칼국수 전문.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흥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 환영. 일요일 휴업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 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숙 조성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 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1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램톤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위정남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열두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프 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주말출장 자동차 수리
(Licensed Mechanic)
전화 : 299-4238 Mr.리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츄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정 한의원
인삼 녹용이라고 모두에게 좋은 약은 아닙니다. 체질을 알고 약을 쓰셔야 합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체질감별, 처방조제, 체질별 식이요법, 침, 뜸, 우황, 사향, 경명주사, 녹용, 인삼및 전재한약, 신경통, 관절염, 요통, 고혈압, 위장병, 두통, 디스크, 신경성 제질환, 빈혈, 부인병일체, 늑막염, 맹장염, 중풍예방, 정력감퇴 및 예방, 허약체질.
643 Bloor St. W. 2층(신용조합옆)
전화 : 536-6854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불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제(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고급레스토랑 남강
●한식 ●일식전문
스시— 바 오픈!
연회석 110석 완비(단체예약환영)
920 YONGE ST. 923-3060

구 인

성실하고 신체 건강한 남자 Full Time Helper 구함.
자세한 문의는, 493-2228
491-6773

Store Cashier 구함.
(Full Time 혹은 Part Time)(Eglinton & Dufferin 지역)
전화 : 783-0683

집에서 재봉일 하실분 구함.
아주 간단한 손바느질과 기계바느질.
전화 : 474-9224(낮) Markham지역.

Operator required. To operate a Gross A. Machine.
Some English Required.
Please call Mary Anne, 593-0320.

남자헬퍼 구함.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366 Bloor St. W. Mrs. 박.

도나스 숍에서 일할 유경험자 구함.
다운타운지역. 도나스 숍에서 커피 만들어보신 분 우대.
전화 : 368-8834

소비자 생산시장에 의욕을 가진
영어에 능통한 분을 구합니다.문의 : 416-292-2659.

작은 사업을 경영했거나 소유하신 분으로 매니져, 또는 세일을 할 영어에 능통한 4분을 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416-292-2659.

방학동안(6~8월말까지) Store Manager로 성심껏 일해 드리겠읍니다. 각종 Store에서 다년간 Manager로 일한 경험있음.
Mr. 박 530-1838(오후5시이후 전화요망)

Student Wanted
(Gain Gas Bar Attendent)
Add : 877 Dundas St. W.

착실한 남자 가게헬퍼 구함.
Part Time. Toronto East지역.
전화 : 466-3995

Mac's Milk Store에서 주말에 일할
경험있는 Cashier 구함.(미시사가지역)
전화 : 278-4867

아기 돌봐 주실분 구함. 몬트리올지역. (적어도 2개월 내지 6개월동안). 숙식·교통편의제공·우대함
전화 : 921-7105(Mrs. 리 오후4시이후)

재봉사급구 (유경험자).
시간당 5불. 829 Dundas St. W.
전화 : 368-2819. Mr. 왕.

한국밑반찬 만드실 경험있는 분 구함.
직접 내방 바람.
주소 : 5568 Yonge St. 동아식품.

양장과 양복 재봉기술자 구합니다.
보수 주 250불 이상.
전화 : 366-0459. Mr. 강.

▲씨알 한국인학교에서 여름에 일할 대학생 운전수를 구함. 주급 $200.
▲교사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3년간 여름동안만 Internship으로 일할 대학생 구함.
8주 주급 $175. 이력서를 150 Madison Ave. Tor. M5R 2S5로 보내주시기 바람.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개 인 지 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 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전화 : 535-0708 Mr. 박

매 매

▲주유소, 또는 Fast Food.
▲상업지대(HWY 20) Fanhill에서 3마일서쪽에 있는 큰 2층빌딩 (전망 아주 밝음)
▲9 3/4에이커, 아스킹 12만8천9백불.
▲전화 (토론토) (416)255-0883 Call Taso
(St. Catharine)1-688-4561 Call Dawn Gurd

Yonge St.에 있는 Snack-bar(커피, 샌드위치)
오전7시 open, 오후4시 close, 주5일 영업.
적은 자금으로 운영가능. 전화 : 245-4614(오후7시이후)

그로서리스토아와 2 Bedroom 딸린 건물 급매.
Asking 12만불.
433 Pape Ave. Tor.

시간짧고 이윤 좋은 가게 급매.
주매상 $3,200. 리스 4년. Rent $500.
가격 : 2만8천불. 전화 : 654-4709

Mall 안에 있는 Gift Store 급매.
연매상 12만7천불. 리스 1990년까지.
Asking:2만불 + Stock. 전화 : 282-6282

---

(1)Bramalea City Centre 쇼핑 몰안에 있는 Naturalfood Nuts종류 Bulk Food Store. (2)바쁜 몰. Take-Out Food식당 혼자할 수 있음.
좋은 리스. 장래 유망업종. 성업중인 바쁜 몰안의 비지네스. 인구계속 급증지역. 무경험자 연락 바람.
전화 : 793-4249 Mr.고

드라이크리너(Depot) 픽업스토어,
또는 Shoe Repair 팝니다.
다운타운지역. 전화 : 598-4327.

위치좋고 Parking 장소 넓은
Driving Hamberger Place 팝니다.
주매상 $6,000. 렌트 $2,300.
리스 1990 + 5년옵손. Asking $16만불.
전화 : 741-9170 A.E. LEPAGE Mrs. 우.

번화가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섬마린 빵가게 급매.
(1)가족이 운영하기에 알맞은 규모. (2)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된 매상. (3)월 이익금 5,000불 이상 보장. (4)양도전 일정기간 동안 기술및 운영의 편의제공. 사업관계로 좋은 조건에 양도코자 함. 전화 : (604)875-8623, 밤 872-5593.
주소 : 1063 Davie St. Vancouver B.C. V6E 1M5 (Mr. Kim)

76년 Bonair Hard Top Trailer (6명용 장비포함) 급매코자 함.
전화 : 298-0354, Mr. Ye(오후5시이후, 주중연락)

햄버거 레스트랑 급매
성업중, 리스 좋음. Downtown(시내중심가)
전화 : 461-2404 MR. ANGELO

가게와 살림집 딸린 건물 급매.
○살림집 : 3 Bedrooms, 거실, 부엌, 변소(4 pc)
○가 게 : 년매상 25만불이상, 우체국도 겸함.
Asking 12만불. Howard Moore
(705)325-4448, (705)325-4290
Moore & Lougheed Ltd.

식자기 팝니다. Spica-K형. (일본 Shaken 회사제) 한글·한자·일어·영어 식자가능.
전화 : 977-3745 Mr. Cheng

New Plaza(Yonge & North HWY 7)에 위치하고 있는 콘비니언스 스토아 급매. Asking $3만4천 + Stock.
전화 : 492-9031. Mr. Tam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건물포함)
주매상 : $5,000이상. 경쟁없는 코너스토어
2층에 3베드룸. 전화 : 781-7080

---

(1) 레스토랑 팔거나 또는 렌트함.
(2) 스토아 렌트. 좋은 사업전망.
St. Clair & Keele 전화:532-8227. George.

Variety & Convenience Store 급매.
새 프라자안에 있음. 좋은 사업임.
(Located next to Swiss Chalet & Canadian Tire).
9625 Yonge ST.(at Yonge & Weldrick). 전화 : 884-5785

전망 좋은 빵가게 팝니다.
276 Dundas E.
전화 : 961-9780

3년된 하우스 팝니다.
타주 이주관계로 좋은 조건으로 팝니다.
가격 : $97,000. 전화 : 499-3764

버라이어티 스토아및 건물 가정형편상 급매. 이윤 좋고 경쟁 없는 코너스토어. 2층 2베드룸. 주매상 : $4,000 + 티켓. 9 to 9. 해밀톤. 전화 : 526-7179 Mr. Kim.

Becker's 후렌차이스 스토어 팝니다.
직접 내방요망.
314 Painted Post Dr. Scarboro, Ont.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 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실 내 장 식

Samuel Harris Limited
362-1964

실내를 완전히 청소하고 꾸며드립니다. (집·가게·사무실등 등)
◉특별봉사
- 가죽및 인조가죽
- 각종 섬유제
- 자동차 실내
178-182 FRONT ST. E. 한번 방문하시거나,
전화 : 362-1964 상담 바랍니다.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승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부엌달린 방을 찾고 있읍니다. 새로 이민 온 부부임. Room 하나, 혹은 지하실 방도 무방함.(6월1일 입주희망)
전화 : 360-1790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틱 탱고, 룸바, 차차,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 구 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크리스탈 꽃집.
각종 어레인지먼트,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366 Bloor St. W. 전화:927-8730 Mr. 박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SUN PAINT & WALLPAPER
각종 고급 페인트와 벽지 취급. 무료견적. 상담환영.
619 McCowan Rd & Lawrence Ave. 전화 : 438-6965 이광순.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파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 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피고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우체국옆) Scarboro.
전화 : (B)759-8854, (R)755-2759 Mrs. 허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97-979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JOA STUDIO(결혼사진및 비데오전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299-4223(Mr. 조)
499-3893(Mr. 정)
424-2082(Mr. 윤)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퍼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